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70호

Wednesday, August 27 2025 A

누구를 위해 ‘동포 간담회’를 열었나?

한인 언론·보수 인사 배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
동포 기자 취재질막혀

워싱턴에서 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포 간담회’가 지난 24일 워싱턴DC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동포 간담회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만나 친밀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데 목적과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방문이 쉽지 않은데다 고위급 정치인들을 만나 한인커뮤니티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2박3일 워싱턴 방문 첫 일정으로 진행된 ‘동포 간담회’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우선 한인사회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기자는 “동포사회를 전담하고 있는 총영사관에서 이같이 한인 언론에 대한 인식



동포 간담회가 열리는 워싱턴DC 콘래드호텔 메인룸으로 입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일행.

이 부족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한인사회에 알릴 기자 출입이 원천 배제됐다는 데 화가 치민다”고 노골적 불만을 내뿜었다.

이 기자는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사전에 “각 언론사 별로 대표 한 명만 초대되고 취재를 위한 기자는 출입이 금지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동포 간담회 내용을 동포들이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하며, 총영사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기자는 이날 기본 업무인 취

재는 손도 되지 못하고 호텔 로비에서 3시간 가량 죽지다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포 언론 취재 배제에 이어 초청대상을 선정할 때 지나치게 정치 성향(진보와 보수)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불거졌다. 보수 성향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인사는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초청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며 이멜 주소를 달라고해서 주었더니,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았으며, 참석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총영사

관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행사 참석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구분은 오히려 동포사회 분열을 부추긴 결과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동포 간담회 좌석 배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동포 간담회 헤드 테이블 좌석 배치는 행사에 걸맞게 한인회장이나 한인단체장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물론 어떤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장 배석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은 데, 그 이유는 한인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동포 간담회 발언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국적 하향’과 ‘재외국민 투표방법’ 개선을 강조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동포 간담회’는 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권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갈라쳐 한인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행사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야 할 동포 언론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환 기자

트럼프를 움직이는 6개 측근 그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최측근 그룹을 거느리고 이들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조율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결정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기사〈대통령이 조각난 연합을 통합한다:트럼프 월드의 여섯 파벌〉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법을 새롭게 조명했다.

보수단체 ‘신앙및자유연맹’(Faith and Freedom Coalition) 창립자이자 노련한 공화당 컨설턴트로 알려진 랄프 리드는 “긴장과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남북전쟁 직전에 창당된 공화당의 배경 그 자체”라며 “이는 당의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 성공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1기 행정부의 백악관 상임고문을 지내고 현재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진영 지지자들이 많이 시칭하는 ‘워룸’ 쇼를 진행하는 스티븐 K. 배넌도 “193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처럼 우리 진영에서도 서로 연합했다가 다시 서로를 공격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저널리스트 로라 루머는 “자기 진영 내에서 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잊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해롭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근접한 최측근 그룹은 역시 MAGA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머저리 테일러 그린, 배넌,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의 워킹 클래스와 반 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작년 선거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불법이민 단속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육재 기자

▶ 2면 ‘6개 측근 그룹’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적인 은퇴연령은 50대후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시점은 60대 초반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서비스 업체 임파워가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은퇴 적정연령으로 평균 58세가 선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실제 은퇴연령은 남성 64세, 여성 62세였다.

트랜스아메리카은퇴연구소 조사에서는 은퇴자의 58%가 계획보다 일찍 퇴직했으며 이유는 건강악화(46%), 고용상실(43%), 가족문제(20%) 등이었

은퇴 희망나이는 58세 선호

다. 재정적 여유로 은퇴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은퇴자산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다. 노스웨스턴뮤추얼 조사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126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46만 달러에서 낮아진 수치로, 경기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51%는 은퇴자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수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은퇴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늦출수록 재무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을 미루면 월지급액이 늘고 은퇴자금 소진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준자료를 인용한 자산관리회사

T.로위프라이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0만달러, 은퇴자산 90만달러를 보유한 62세 근로자가 즉시 은퇴하면 은퇴기간내 자금이 유지될 확률은 64%에 불과하다. 그러나 65세로 은퇴를 늦추면 이 확률은 92%까지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조기은퇴와 실제 은퇴연령의 차이는 재정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조기은퇴를 원한다면 저축·투자 전략을 미리 세우고 의료비를 고려한 장기 자산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은영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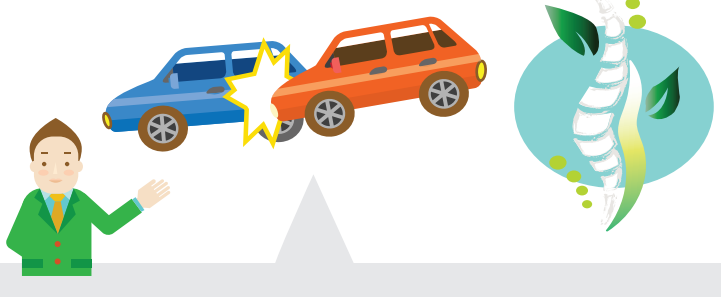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공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트럼프, 국방부 명칭 ‘전쟁부’ 변경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언론 공개 회담에서 “방어만 하기 보다는 공격도 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개월 간 국방부 명칭 변경 의사를 내비쳐왔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전쟁 장관(Secretary of War)’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기존의 전쟁부라는 명칭이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좌파 진영에서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 내세우는 신념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였으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통합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전쟁부일 때 1:2 차 세계대전에서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1940년대부터 사용해온 명칭은 너무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쯤 국방부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지난 3월 자신의

개인 엑스(X) 계정에서 국방부와 전쟁부 중 어느 명칭을 선호하는지 조사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전쟁부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지지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갈등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국방부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통령이 해외 군사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명칭 변경이 실제 추진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이다. 의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린 그냥 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가 따라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VA 주지사 선거, 센터빌 고교 낙태 사건 이슈화

2021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센터빌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낙태 중용 의혹 사건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의 이슈로 전면 부각하고 있다.

원섬 얼 시어즈(공화) 후보는 “부모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학생의 낙태를 주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는 여전히 중요하다(Parents Still Matter)”고 강조했다. 글렌 영킨 주지사가 전면 재조사를 명령한 가운데, 애비게일 스펀베르거(민주) 후보는 “주립경찰의 재조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버지니아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몽고메리, 중고교 학점 인플레이션 시정한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중고교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시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낙제점인 50%를 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학기말 성적 평가는 각 시메스터의 성과를 종합 평균한 점수로 계산해야 한다. 시험과 프로젝트는 전체 성적으로 10%까지 반영된

다. 재평가 혹은 재시험은 한번으로 제한돼 총 2번의 기회만 허용된다. 메릴랜드 교사 노조도 몽고메리 카운티 중고교의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우려해왔다. 교육노조 MCEA의 데이빗 스테인 회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학점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면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DC 주방위군 주둔 1일 비용 100만달러?

워싱턴DC에 파견된 주방위군 주둔 비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최소 30일간 주둔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둔 비용이 10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BLM 시위

당시 워싱턴DC에 파견된 5천여명의 주방위군 1명당 1일 주둔 비용은 530달러로, 1일 총 주둔비용은 260만달러였다.

당시 비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천명 주방위군을 위해서는 100만달러가 소요된다.

대통령-MD 주지사 거짓말 공방 벌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 간에 거짓말 공방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육군-해군 풋볼 경기에서 무어 주지사와 개인적으로 만나 허그를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무어 주지사가 내게 ‘내 인생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사

를 하자, 당신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게 더 좋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어 주지사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양 진영에서는 당시 촬영본을 제시하며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DC 중심가 총격 사건...1명 사망

경찰, 용의자 추적

워싱턴DC 중심가서 26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메트로 폴리탄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새벽 12시30분경 동남부에 위

치한 300 아나코스티아 로드에서 발생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은 트럼프 행정

부가 워싱턴 DC에 범죄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요원과 방위군을 배치한 지 2주 만에 일어났다.

워싱턴 DC에서 총격 살인 사건은 지난 13일 이후 12일 만에 처음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202-727-9099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 중앙일보 구독 및 광고 문의: 703-281-9660

워싱턴 날씨 (°F)

28일(목)	81-60		31일(일)	79-57	
29일(금)	81-57		1일(월)	79-57	
30일(토)	77-56		2일(화)	81-57	

8월 27일(수) 78-5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

1

5

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MDRT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하나되게 하소서’ 한미국가조찬기도회 20주년

10월 7일 워싱턴DC에서 개최

한국과 미국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미국가조찬기도회(고문 류응렬, 회장 정승욱, 이사장 서옥자, 준비위원장 윤필홍)가 오는 10월 7일(화) 오전 8시, 워싱턴DC 국회 레이번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다.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되게 하소서’(시편 133:1 / 요한복음 17:21)다.

정승욱 회장은 “변화의 시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원 코러스(One Chorus)’로 연결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원 코리아(One Korea)’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 포지션(One Position)’으로 가능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서옥자 이사장은 “한국과 미국이 양

극으로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기도회의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기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의 기조연설은 조디 하이스(Jody Hice) 목사가 맡는다. 하이스 목사는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선임 펠로우로,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으로 8년간 재직할 경력이다.

조지아 출신인 그는 애스버리 칼리지와 사우스웨스턴 뱍티스트 신학대학, 루터라이스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25년간 목회했다. 또한 전국 400여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는 보수 토크쇼 ‘더 조디 하이스 쇼(The Jody Hice Show)’를 11년간 진행했다. 의회에서는 정부감시위원회와 천연자원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국가안보소위원회와 정부운영소위원회 최고위직 간사로도 활약했다.

주최측은 이날 기도회 참석을 원하는 동포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버지니아는 애난데일 소재 한스여행사 앞에서 오전 7시에, 메릴랜드는 엘리콧시티 신촌식당 앞에서 오전 6시15분에 출발한다.

또한 메트로를 이용할 경우 오렌지라인 캐피털 사우스(Capitol South)역에서 하차하면 행사장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

기도회는 초대장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문의: 703-844-0355

김윤미 기자

백악관 “DC서 범죄자·불체자 1000명 체포” 발표

이달 초 방위군 투입 후

49곳 노숙자 캠프 정리

백악관은 이달 초 연방 법 집행 기관과 국가 방위군이 워싱턴DC로 파견된 이후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11건의 총기가 압수된 것을 비롯해 MS-13 갱단원 6명 체포, 그리고 49곳의 노숙자 캠프를 정리했다.

지난 7일 이후 체포된 사람은 총 1007명이었는데, 이 중 37명은 불법체류자였고, 나머지는 각종 범죄 연루자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수도에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워싱턴DC 경찰국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인수하고 국가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치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비

상 사태의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DC경찰국을 일시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그는 연방 경찰 주둔이 언제 종료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법에 의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경찰력을 워싱턴DC처럼 범죄 발생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볼티모어와 시카고에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청소년재단 과외교실 및 멘토링

워싱턴청소년재단이 1-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50분까지 두 타임에 걸쳐 읽기 및 쓰기, 단계별 수학 과목을 가르친다. 과목당 등록비는 100달러, SAT는 영어와 수학 과목당 150달러이며 등록마감은 9월6일이다.

올해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은 에스더 교사의 진행으로 9월13일(토) 오

전 11시30분에 시작한다.

아울러 재단 측은 세계 속 K-컬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 예술과 교육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취지의 한글 교실을 개강한다.

한글교실은 9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한다. 등록비는 200달러다.

문의: 240-722-7198

김윤미 기자

ICE, 한인 1명 체포 추방절차 밟는 중

CA거주 최정 씨,살인사건에 연루

트럼프 행정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계속해서 ‘최악 중 최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ICE 요원들은 최근 “마약 밀매범, 폭력 강패”를 비롯해 불법체류 이민자 다수를 체포했는데, 이 중에는 한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ICE가 2020년 자발적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최 정(53) 씨를 체포했는데, 최 씨는 2017년에 아내를 살해한 남자 동료로 도운 혐의를 받았다.

ICE 요원들은 지난 22일 가석방된 최 씨를 체포하여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우리는 범죄자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더 이상 이 땅

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2-3일 동안 체포된 “최악 중 최악”의 불법 이민자는 최 씨 외에도 사기, 위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마린 안드레스 고메즈-아레나스(41)와 마약 밀매범 조일로 올긴-타바레스, 불법 밀입국자 리고베르토 모랄레스 에르난데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에 독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다이 페레스-페레스(33) 등이 있는데, 범죄 종류와 연령도 다양각색에 이르고 있다.

김성한 기자

베다니 목요시니어센터 개강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에 위치한 베다니장로교회(담임목사 김영진)가 ‘베다니 목요 시니어센터’를 개강한다.

오는 9월11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주간 강좌를 오픈한다.

강좌는 문화·소셜(바둑, 장기, 미술, 비즈공예, 뜨개질), 디지털(스마트폰반, 컴퓨터 기초, 핸드폰 셀프사진 및 유용한 앱), 스터디(기초영어, 중급영어, 시민권 신청), 음악(장구, 음악, 하모니카, 기타, 우쿨렐레), 운동(고전무용, 태권도, 타이치 체조, 라인댄스, 에어로빅,

탁구)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가을학기 베다니 수요일 여성 교실도 9월10일부터 12월3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이밖에 토요 남성모임 및 베다니 한글학교 학생도 모집중이다.

문의: 목요 시니어센터- 신창기 장로 (240-550-4887), 수요일 여성교실- 지경숙 권사(240-888-0791), 토요일 남성모임- 홍석천 집사(240-620-8462)

김윤미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력을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데이빗 막스 변호사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Super Lawyers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억울하다, 분노 조절 못하면 극단적 생각

잇단 한인 가정불화 비극
금전·외도 문제 등이 발단
한인 상담건 30%나 늘어

LA 한인 사회에서 가정 불화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한인 여성이 동거남이 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70대 한인 천세철 씨가 롤링힐스 지역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한인 사회에서는 가정 불화가 총기 폭력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정신과의사협회 조만철 회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혼 분쟁 과정에서 한쪽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면 그 분노가 겹쳐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정 불화는 돈, 치정, 그리고 명예가 얽혀 있을 때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41%, 남성의 26%가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 가운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우울증 또는



천세철씨의 루비주얼리가 입주한 빈센트 주얼리센터 빌딩. 김상진 기자

심각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지 겪고 있다. 국립보건원(NIH) 측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노 조절 문제가 꼽힌다”며 “특히 배우자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지원부서 김현희 디렉터는 “한인 사회 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팬데믹 이후 약 30%가량

상담 건이 급증했다”며 “특히 한인들은 가정 내 불화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데 주변에 알리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디렉터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알리기보다 단순히 폭력이 멈추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의 조짐이 보인다면 미리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알리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인가정상담소 핫라인: (888) 979-3800 송윤서 기자

유명 한인 보석업체 대표 아내·딸 총격살해 후 자살

‘루비 주얼리’ 천세철씨
이혼 위자료 문제 갈등

유태인들이 장악했던 LA다운타운 보석 업계에서 큰 부를 일구며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히던 70대 한인이 아내와 딸을 총으로 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한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두고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LA카운티세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롤링힐스 지역 크레스트로드 이스트 18번지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날 세리프국 수사 요원들은 “여동생과 아버지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전 10시 20분쯤 주택 내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루비 주얼리(RBJ)

대표 천세철(72)씨를 발견했다. 당시 신고자는 천씨의 큰딸인 캐런 천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리프국 마이클 모디카 요원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주택 내에서 천씨 외에 크리스틴 천, 천명숙씨가 상반신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세리프국 측은 이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크리스틴 천(40)씨는 작은딸, 천명숙(69)씨는 아내라고 밝혔다. 모디카 요원은 “천씨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맨 뒤 숨이 바로 멎지 않자 스스로 총을 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됐던 권총이 천씨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LA다운타운 보석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씨 부부는 가정 불화를 겪다가 약 2년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

다. 본지 확인 결과 천씨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월에는 아내인 천명숙씨가 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기록도 확인됐다. 천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LA한인타운 한 아파트에 거주해왔으며 아내와 딸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롤링힐스 지역 주택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지난 1984년 LA다운타운에서 작은 쇼케이스를 통해 금·보석 도소매업을 시작했다. 이후 3000개 이상의 소매업체 등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사업이 급성장했고, 부동산 업계로까지 진출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김경준·강한길 기자

주택 절도 93건, 일당 8명 체포

남가주서 2년간 범행

최근 주택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남가주 일대에서 2년 동안 100건 가까이 주택 절도 범죄를 저지른 일당 8명이 체포됐다. 25일 캐런 베스 LA시장은 짐 맥도넬 LA경찰국(LAPD) 국장, 네이션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 8명을 지난 2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RRBC(Rich Rollin Burglary Crew)’라는 이름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으며 밝혀진 범행만 93건에 달한다. 맥도넬 국장은 “여러 부서 수사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여러 건의 주택 절도 사건이 동일 조직의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와 올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거는 지난 2월 용의자 3명이 체포되면서 단서가 드러났고,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경찰은 체포된 20~40대 용의자 모두 절도 전과가 있고, 지역 갱단과도 연계된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체포



네이션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조직 절도단 검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메이스트 캡처]

된 8명은 생계형이 아닌 탐욕스러운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훔친 물건을 유통하는 장물거래 범죄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LAPD는 급증하는 주택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LA Impact task force)를 꾸려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작전에는 올림픽·월셔·웨스트밸리·센트럴 경찰서를 비롯해 LA카운티 세리프국도 참여했다. 김형재 기자

한인 시니어 살해범 3년만에 검거

2022년 숨진 김옥자씨 사건
다른 사건 용의자 DNA 분석

샌퍼낸도 밸리에서 약 3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주거 침입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범정에 선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에릭 에스카밀라(27)는 2022년 8월 우드랜드힐스 자택에서 살해된 한인 김옥자(당시 81세) 씨 사건과 지난 4월 밸리밸리지에서 발생한 매니 히드라(53)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2건과 1급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인

정 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살인 혐의에는 ‘다중살인’과 ‘주거침입 중 살인’ 등 특별가중 사유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카밀라는 김씨 자택 방화 혐의와 2022년에 발생한 또 다른 흥기 살인 미수 사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8월 2일 우드랜드힐스 마사 스트리트 20800번지 블록에 위치한 자택 침실에서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가족들은 김씨가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자 자택을 방문했다가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LA카운티 검사국은 김씨의 사인을 ‘교살을 동반한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부상’으로 발표했다. 에스카밀라는 지난 5월 8일 히드라 사건과 관련돼 체포됐으며, 이후 두 사건의 DNA 증거가 일치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에도 주거침입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카밀라는 현재 보석 없이 수감돼 있으며, 다음 예비심리는 9월 5일 LA다운타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살해 가담했던 한인 여성
가석방 하루 만에 ICE 체포

중가주에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한인 여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연방 이민 당국이 진행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3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 국적자인 최정(53)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7년 내연남인 지상림씨와 함께 샌베니토카운티 홀리스터한 주택에서 지씨의 아내인 신윤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계곡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최씨는 곧 ICE에 의해 체포됐으며 곧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DHS 측은 “살인을 저지른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디지털기업 규제 국가엔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국 IT 기업에 세금 등 규제를 가하는 외국에 대해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한국도 추가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또 중국 최대의 기술 기업들에는 터무니없이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법안·규칙·규제를 도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애비 게이트 자살 폭탄 테러 4주년을 추념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국가들에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연합(EU)이나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도입 중인 디지털세,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 미국 IT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통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로 지목된 바 있어 추가 관세 대상이 될지 정부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움직임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트 공급자의 망 사용료 부과, 정밀 지리정보국의 반출 제한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 IT 업계는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자국 정부에 계속 촉구해 왔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IT 업계 유관 단체 6곳은 디지털 장벽으로 분류한 사안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더는 세계의 돼지저금통이 아니고 발판도 아니다”며 “미국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존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경고했다.

김형구 기자

‘트럼프 관세협상’ 결국 문서화하나…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미국 방문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문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7월 투자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등에 대한 협상을 미국과 매듭지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6일 지지통신과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빌려 대미(對美) 투자금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엔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FOX 뉴스를 통해 밝힌 정식 관세협상 합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투자금에 대해 그간 미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나 일본 무역보험(NEXI) 등에 의한 출자나 융자, 융자 보증액의 상한액이라고 설명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측근으로 마일 관세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사진)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번 주 후반에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로 했다. 상호관세(15%)와 자동차 관세(15%)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 적용 시점이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카자와와 경제재생상은 관세 협의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 들러 이시바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투자 합의문과 관련해 “일·미 간의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미 간 공동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하지 않은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나는 관점에서 검토해 실행에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부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설비 투자에 대한 한시 세제 우대 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세제 우대는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5년에 걸쳐 적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막론하고 우대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예 기자

트럼프 손등에 또 멍 포착…백악관 “아스피린 부작용”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에 큰 멍이 포착됐다. 지난해부터 미국 언론에 거론되며 건강 이상설까지 낳았던 그 멍이다. 백악관은 멍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환대하며 악수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에는 짙은 멍 자국이 뚜렷했다. 이후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손등의 큰 멍은 줄곧 눈길을 끌었다.

AP통신은 지난 22일에도 트럼프 대

통령 손등에서 피부색과 맞지 않는 화장품 자국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같은 부위를 화장으로 자주 가려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연결지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 왔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 79세로,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기준으



로 하면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8세 221일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이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손등의 멍 자국

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시 백악관은 “많은 사람과 악수하면서 생긴 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설명에도 건강 이상설은 잦아들지 않았고, 백악관은 지난달 17일 다시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종합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며 손등의 멍은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혜연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 인생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점

웨이마트(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친중·반미 우려 덜었지만, 세부 청구서는 남았다

한·미 정상회담 평가

view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 친밀감을 느끼는 데 확실한 공감을 하고 끝났다.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강유정 대변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춘 대미 정상외교를 다시 가동하고,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신뢰를 쌓는 등 상징적 의미에서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게 목표였다면, 대통령실의 평가대로 이번 회담은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려했던 ‘트럼프발 돌발 사고’도 없었다.

하지만 현미경을 들이대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정작 통상과 안보 분야 등에서 산적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를 “그조차도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정상회담 뒤 하루가 지나서도 양국 간 합의 사항을 담은 결과물이 문서로 나오지 않는 건 오히려 그 여파일 수 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이견 노출을 가까스로 피한 것”일 뿐(영국 BBC 방송)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시적인 합의물은 없고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단 양측이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 접근법에 공감한 건 정부가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고,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수차례 화답했다.

언론에 공개된 53분간의 발언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김정은의 이름만 13차례 언급할 정도로(영문본 기준)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 대통령 의자 빼주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자를 빼주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미 정상회담 주요 쟁점별 대응 결과			자료: 연합뉴스
정상회담 이전 관측	통상 분야	안보 분야	
	·미,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문서화 및 한국 직접 투자 확대 요구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 요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안보 청구서	
한·미 정상회담 양측 정상 입장 및 언급 내용	·대통령실 “세부사항 논의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 “한국 측이 무역합의 문제 제기했지만 지난달 타결한 합의 유지할 것”	·주한미군 감축 구상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이재명 대통령, 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공식화(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누군가 (대화 재개를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남북보다 미국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무역 회의”로 언급하면서도 “이를 위해 한국에 곧 가게 될 것”이라며 참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의미가 크다.

**정상외교 가동·친밀감 형성은 성공
우려했던 트럼프발 돌발사고 없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동력 확보**

**‘동맹의 현대화’ 큰 방향만 합의
대미 투자펀드 집행방식 확정 못해
BBC “이견 노출 가까스로 피해” 평가**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한 건 미국이 요구해온 ‘동맹의 현대화’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의 경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큰 방향에서는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의 합의는 곧 세부적 사안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일 수 있다.

미국이 잠시 ‘안보 청구서’를 보류한

것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트럼프 2기 안보정책 윤곽은 조만간 공개될 미국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한·미가 정상급에서 동맹이 나아갈 방향과 방위 공약에 공감대를 이루고 세부 조율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속제를 미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한국은 과거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힘으로써 워싱턴 조야에 퍼진 ‘친중 반미’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 외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중국은 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에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주문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추후 이번 회담에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 외교적 일관성을 해치고 자칫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 직접투자(FDI)에 나서기로 한 건 트럼프의 대규모 투자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통상 협상 타결 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과 집행 방식 등은 정상회담 뒤에도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양국이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도지만, 세부 사안에서 양국 간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보통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실무진에서 현안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상급에서는 이를 추진하거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 마지막 이견을 해소하곤 한다.

박현주·장원석 기자

“고양이 울었다고”…프랑스 기차 승객 과태료 110유로 처분

프랑스 기차에서 한 여행객이 데리고 탄 고양이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26일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110유로(약 17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을 제기하자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다. 고양이는 이동용 우리에 넣고, 고양이 몫의 요금(7유로)도 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SNCF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공공질서 교란’이었다. SNCF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과태료는 승객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진술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광복 80주년 8.15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 후원 감사의 말씀 결산 보고

감사 최희대 *Choi*

수입 내용 (후원자)	금액	수입 내용 (후원자)	금액	지출 내용	금액
1. 에덴시니어 건강센터 (첼트리, VA 지역)	\$1,000	글로벌어린이재단 홍보부장 박순옥	\$100	1. H-MART 쌀 15 LBS 100포	\$1,000
2. 에버그린시니어 건강센터	\$500	10. 전수대 사장	\$150	2. 광고비 (8.15 행사 아가페복지센터 광복 80주년 독거노인 쌀 전달, 언론사 및 WKTV 등)	\$850
3. 한미여성재단 박미숙 이사장	\$500	11. 노인연합회 이사 정연춘	\$100	3. 행사 후원 인쇄 광고 110군데 편지 발송	\$350
4. 노인연합회 부회장 강수자	\$500	12. 노인연합회 이사 John 한	\$100	4. 8.15 광복절 행사 배너 및 광복 80주년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 배너	\$400
5.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 목사	\$500	13. 설악가든	\$100	5. 8.15 행사 아가페복지센터 임원 이사 10명 식사	\$285
6. State Farm 보험 대표 신디양	\$300	14. 노인연합회 이사 김혜경	\$50	6. 노인회 사물놀이 창고 보관비	\$300
7. 노인연합회 이사 조길숙	\$300	15. 노인연합회 이사 김경은	\$50	7. 광복 80주년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후 참석자 식사비	\$285
8. 미주통일연대 김유숙 회장	\$100	16. 전월 행사 잔액	\$386		
9. 글로벌어린이재단 (VA) 회장 김남숙	\$100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최평란	\$100				
글로벌어린이재단 부회장 윤애경	\$100				
글로벌어린이재단 서기 조안나	\$100				
수입 계	\$5,136	지출 계	\$3,470		
수입 \$5,136 - 지출 \$3,470 = \$1,666 (10월 6일 추석 행사 사용 예정)					

버지니아 한인회 (VSOK) /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회장 우태창



즐거운 건강복지센터

Joyful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10

ANNIVERSARY



초·대·합·니·다!

즐거운 건강복지센터 10주년 기념 파티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한 10년!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 오전 9시

장소 Joyful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6650 Belair Rd., Baltimore, MD 21206



- 풍성한 음식과 다채로운 공연
- 감사장 수여
- 우리 어르신들의 재능 발표 시간!

지난 10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참석 문의: 410-601-3358

* RSVP: joyfulamdcmd@gmail.com

함께하면 더 즐거운 조이폴!
기억에 남을 하루, 꼭 함께 해주세요!



즐거운 건강복지센터
Joyful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문의: 410-601-3358, 443-793-6982
6650 Belair Rd., Baltimore, MD 21206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5’에 참석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젤렌스키 모멘트는 피했지만 한·미 관건은 관세·투자 디테일”

매티스 “위기 극복법은 오직 동맹”
정동영 “북미 적대상태 해소해야”

“종알을 피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맞지 않고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쳤다는 평가다.
차 석좌는 26일 신라호텔에서 ‘협상의 기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5’에서 “이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로피스에서 긴장하는 대부분의 지도자와 달리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북한에 대한 관점(평화 구축자로서의 노벨상 수상)의 지와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서 북한 내

트럼프 타워 및 골프장 건설 등)에 호소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자연스레 북한 관련 대화로 끌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이라는 군사적 측면에만 집중해 온 과거의 접근법은 한계에 부딪혔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체제 보장, 미국·일본과의 수교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현실적 경제발전 로드맵을 손에 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 포괄적 대타협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북·미, 북·일 수교가 이뤄지고 북한과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하면 북한도 국제적 행동기준과 규범을 지킬 수밖에 없어 핵이 무용지물임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럼프가 올린 당혹스

러운 SNS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노련히 대처해 트럼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젤렌스키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남은 임기) 3년여 간의 한·미 관계 톤(분위기) 설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차 석좌는 “회담에서 진짜 어려움이 있던 것은 경제(관세·대미 투자) 분야로 보인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바로 미국으로 갔음에도 관련 분야 언급이 양국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분야 디테일을 확정짓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로 “양국 간에 투자 조건과 자국 시장 개방(쌀과 소고기 포함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런 모호성을 향후 작성될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바탕으로 억제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조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토대로 더 모험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분석관의 지적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동맹, 동맹, 또 동맹”이라며 “나토가 연대해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처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국가, 그리고 북한을 마주하는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미국, 일본을 포함한 200개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관 나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띄우며 “한·미·일 3자 협력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거꾸로 된 지도가) 알려준다”고

말했다. 해당 지도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초 내부용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티스 전 장관은 “대만 문제와 북·중·러 3자 협력에 무관심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경제 대국이자 K팝 등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강국, 군사력도 세계 3~4위 규모”라며 “한국은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현상 변경 의지에 주목한다”며 “북·미 간의 적대상태 해소,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현상 변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골드버그 “트럼프, 국방비·미군 주둔비용에 상당한 관심 분명”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과제
“비핵화 위한 핵억지, 최우선 순위로”
“양국 동맹 신뢰 쌍방향으로 흘러야”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포럼 1세션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필요시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줄 것인지 한국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좀 더 가시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세션 좌장을 맡은 송

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존 햄리 소장**=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남은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을 침공해 핵무기를 파괴하는 건데,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억지다. 이를 두고 한·미 간 합의점이 없다. 논의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현 단계보다 더 많은 협력과 공유된 핵 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중요한 문제다. 평시 전작권을 전환

하는 것과 실제 전쟁 발발 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전 정부에서 만든 핵협의그룹(NCG)을 활용했으면 한다. 핵 운용 메커니즘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NCG다. 북한의 남침 등으로 군사행동이 개시될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배타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란 큰 틀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재래식 군사력만 보면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 북

한을 섬멸할 수 있다. 반면 확장 억지력은 부족하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더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한·미 동맹의 중점 역할을 대중 견제로 전환하면 중국과 적대 관계로 변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한·미 동맹 역할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지난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공정한 협상이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도 대부분 한국 비용으로 지어졌고 한·미 분담 비율을 따지면 거의 10대 1이다. 그러나 트럼

프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한·미 동맹의 신뢰는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하고 국방예산도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크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기대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 미국이 군사작전 전개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It's Okay,
with
Jesus!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 한 재키 조앤 한 세라 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루레이동굴 \$125

추석 연휴 특선 버스 투어

캐나다니아아가라 &뉴욕2박3일

\$650 10/6(월)-10/8(수) 확정

매주 목요일 출발 가능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1박2일

10/2(목)

캐나다니아아가라 &뉴욕3박4일

9/3(수) 출발, 9/24(수) 출발

미동부캐나다 5박6일

9/29(월), 10/20(월)

수요일 출발

\$399

수요일 출발

\$899

월요일 출발

\$1,350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2025년 10/15(수)-10/25(토)
내륙일주 7박 8일 \$2,390
전국일주(제주포함) 10박 11일 \$2,9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전일정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4/11(토)-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렉스 7박8일 \$2,590

가을여행1

니아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9/25(목)-9/28(일)
\$950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가을여행2

허드슨크루즈, 화이트마운틴 기차, 뉴포트, 보스턴

3박4일 9/29(월)-10/2(목)
\$1,099

NEW 한스 골프 투어

지중해 휴양도시

터키 안탈리아 골프 & 투어

& 고대도시 페르게와 이스탄불 투어

2025년 11/9(일)-11/16(일)
7박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 데이빗 한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딩 + 온천

2026년 1/22(목)-1/27(화)
5박6일 \$2,490 **항공포함**

인솔자: 세라 정

1/8(목), 1/12(월)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을여행3

스모키마운틴

딕시스탬피드 디너쇼/
루비폴/락시티/
스모키마운틴

2박3일
10/24(금)-10/26(일)
\$899

가을여행4

버지니아 사파리 & 네추럴 브릿지

당일투어
1차 10/18(토)
2차 10/25(토)
\$169

한스 핫딜

팬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
라바스 생태공원

11/26(수)-11/30(일)
항공포함 \$2,090 인솔자: 세라정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 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09/14(일)-09/24(수) 서유럽3개국	마감
09/30(화)-10/13(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트	마감
09/30(화)-10/07(화) 동유럽	마감
10/06(월)-10/13(월) 크로아티아	마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마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마감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인솔자
10박11일 \$2,990 딜렉스 리무진 버스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조앤 한
12박13일 \$3,690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조앤 한
9박10일 \$2,890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재키 조
12박13일 \$5,995 SMALL GROUP DELUX	
11/09(일)-11/16(일) 터키 안탈리아 골프 & 투어	데이빗 한
7박8일 \$3,590	
11/26(수)-11/30(일)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세라 정
4박5일 \$2,090 항공포함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9박10일 \$5,190 SMALL GROUP TOUR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8박9일 인사이드 \$1,340부터 오션뷰 \$1,440부터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5박6일 \$2,490 항공포함	세라 정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애나 김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27박28일 \$19,550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재키 조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5,4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렉스 리무진 버스**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790	애나 김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0박11일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조앤 한
05/24(일)-06/04(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6/29(월)-07/12(일)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08/17(월)-08/29(토) 아이슬랜드 + 그린랜드		
08/12(수)-08/18(화) 알래스카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0/12(월)-10/23(금) 11박12일 포르투갈 & 스페인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트럼프, 방위비 대신 땅 노리나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원해”

“미국이 요새 짓는데 많은 돈 써”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거론한 듯
한국 영토주권 침해 논란 부를 수도
위성락 “미군부지는 공여하는 것”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한국)땅의
소유권(ownership)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가 돌연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한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는데, 방위
비 문제와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를 처
음 연계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가능
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는 4만 명이
넘는 (미군)병력이 있다”며 “지금은 그
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였
고 지금도 친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 첫 임기 때 한국은 주둔 비용
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바이든이 들어
오고 나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고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며 돌연



25일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장소인 오벌오피스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그러더니 “그들
(한국)은 ‘우리는 미국에 땅을 제공했
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요. 당신들
은 땅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빌려주
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
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고 싶
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요
새를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
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요새를 짓는데 많은 돈을 썼다.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부지의 임차권을 없애
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면서다.
맥락상 이는 한국의 방위비를 올릴
수 없다면, 땅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 사
업가 출신답게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셈이다. 이는 곧 분담금을 더 낼
수 없다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시도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염두에 둔 건 2017년 방문
했던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추정된다.
하지만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주
한미군 부지는 한국 정부가 소유하되
미 측에 무상 임대하는 형식이다.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
에서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
이라며 “리스나 지대를 받는 개념이 아
니다”고 설명했다. 주일·주필리핀 미군
기지도 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

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의 영토 주권 침
해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은 자국군의 주둔을 위한
한국 내 시설·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granted)’(2조), 한국은 모든 시설·구
역 및 통행권을 ‘제공(furnish)할 것’
(5조)이라고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 이에
더해 한국은 그간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액을 꾸준히 늘려 왔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부지까지 소유한다면, 이를 대중
전초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원하
는 대로 처분하는 것도 보다 유용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 국방
부는 현재 국가방위전략(NDS)을 비
롯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전반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미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배경일 수도 있
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공개 회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문제를 꺼내지 않았
다.

이유정 기자

북·미회담 띄우자 트럼프 받았다

이 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이 대통령 “김정은도 만나달라”
트럼프 “올해 만날 수 있길 바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
회담 마친 이 대통령 소회글 남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
린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 달라”고 하자 트럼
프 대통령은 “올해 만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
언에서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
되긴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이 문제
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
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
스(평화) 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pacemaker·경주에서 기준 속
도를 만드는 선수)’로 열심히 지원하겠
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어떻게
든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
통령의 인식”이라며 “누군가 단조를 열
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가능성이 더 있
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북·미 대화의 계기로는 오
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
통령을 경주 APEC에 초청하면서 “가
능하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자”고 권했
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APEC 참가 의
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과 다시 만
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APEC을 계
기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제안 단계”라며 신중한 태도
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인 국

방비 증액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
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데 이
어 이날 오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
담 뒤 페이스북에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
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한국
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
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한반
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
드될 것이며,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
도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주둔 규모가 유
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 연설 직후
중국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
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현동 기자

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
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
며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

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
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
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 언론에 “이 대통령은 매우 좋은 사
람이고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평가
했다.

워싱턴=오현석 기자, 서울=윤성민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탐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다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라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트럼프 웃게한 대통령 “북에 트럼프 월드를, 나도 골프 치자”

대통령 “트럼프, 피스 메이커 팬
난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

트럼프는 피습 사진첩 선물하며
자필로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

한번 뇌리에 박힌 첫인상을 쉽게 지우지 않고 틀린 정보를 거침없이 내뱉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도드라졌다. 트럼프는 전반부 약 50분 동안 생중계된 회담에서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합작 투자(joint venture)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힌 게 전부였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를 4만 명이라고 부풀려온 주장도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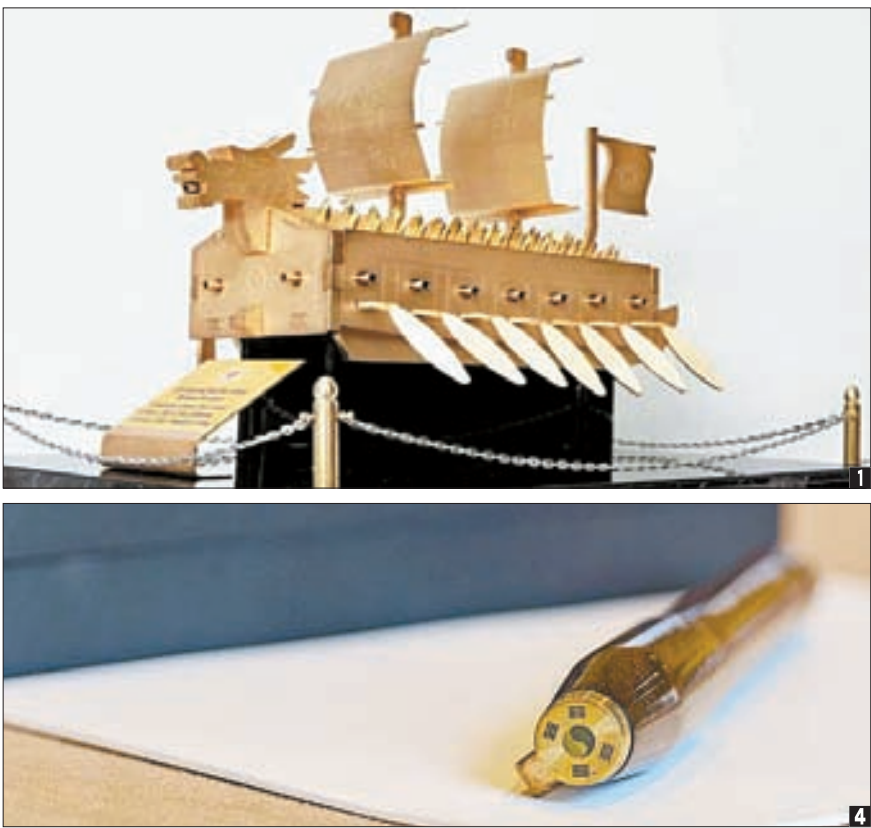
이 대통령 “테러경험 공유, 끈끈한 공감대”

트럼프는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뿌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시 주석이 말하길 한국은 2000년 동안 중국과 51번 전쟁을 했다. 한국은 당시 남과 북이 아닌 하나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시 주석을 인용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 말했다. 1기 행정부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영향으로 갖게 된 인식 그대로였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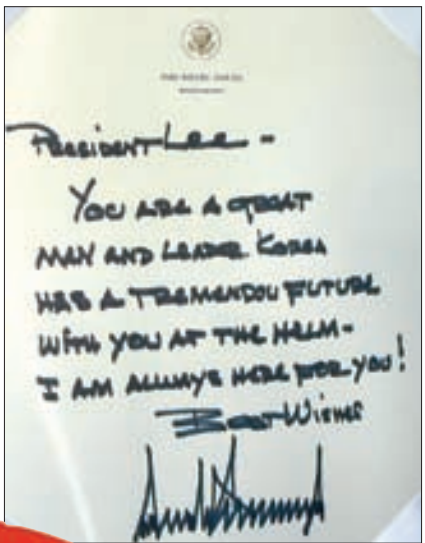
트럼프보다 짙은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 명장이 만든 ‘사족생 생죽사’가 적힌 금속 거북선, 2.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 3. 카우보이 마가(MAGA) 모자 세트, 4. 백악관 방명록 서명에 사용한 펜을 선물했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에 맞서지 않고 코드를 맞췄다. 빨간색은 미국 공화당의 상징색이다. 내내 자세를 곧추세우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은 채 대화하는 모습은 구부정한 자세의 트럼프와 대비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백악관 오벌오피스가 최근 새로 단장한 점을 거론하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는 칭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우존스지수 최고치 경신, 미 제조업 르네상스 등을 화제로 트럼프를 추켜세웠다. 다소 경직됐던 트럼프의 표정이 확 풀린 것은 이 대통령이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기념 메달과 마가 모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쓴 친필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대통령실]



김현동 기자, [사진 대통령실]

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였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이 이를 도울 수 있다. 당신의 접근법이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훨씬 낫다”며 웃음을 머금었다.

트럼프는 비공개 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간 “미국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이 그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8일 뉴욕타임스)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 효과를 본 셈이다.

트럼프가 회담 3시간 전 SNS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글의 여파로 긴장감이 돌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반전시킨 건 사전 분석과 반복적인 예행연습이 있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국제전략문제연

구소(CSIS)를 찾아 “트럼프가 절 만나기 전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써서 우리 참모들 사이엔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간 트럼프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를 하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도 ‘피스 메이커’가 트럼프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꺼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트럼프, 펜에 관심 보이자 대통령이 선물

이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 서명 때 사용한 펜에 트럼프가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관심을 보이자 즉석에서 선물했다. 국내 수제 펜 브랜드 제나 일에 주문해 두 달여에 걸쳐 2개만 제작된 제품이었다.

국산 수제 퍼터, 소형 금속 거북선 모형,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카우보이 모자 등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물건이었다. 골프 광인 트럼프의 취향에 맞춘 퍼터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초에 의뢰해 제작됐다. 거북선을 만든 오정철 대한민국 기계조립 명장은 “7월 말 외교부의 의뢰를 받아 8월 초부터 밤낮없이 15일을 쏟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선물했다. 또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쓴 자필 카드도 선물했다.

윤지원·김경마·박현주 기자

보잉 103대 구매, 미국에 로봇공장… 1500억 달러 추가투자

〈대한항공〉 〈현대차〉

‘보잉 항공기 103대 사는 대한항공, 미국에 로봇 공장 짓는 현대차….’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에 신규 투자를 합친 규모로, 미국의 혁신기술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

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부터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그리고 공급망과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한다면 제조업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들은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499억 달러(약 70조원)를 투자한다. 미국 보잉의 항공기 103대를 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예비 엔진 19대를 구매한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발표한 4년간 210억 달러(약 29조원) 투자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더 보탠다. 연산 3만 대 규모의 로봇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하면서다.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에 기여한 조산업에선 HD현대가 미국 조선업 재건 등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도 미 해군 함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과 현지에서 상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원전 관련 양해각서(MOU)도 4건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 팀’으로 뛰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아마존웹서비

스(AWS), X-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대표 성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이고, 3500억 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현대차가 투자를 260억 달러로 늘렸다. 이게 바로 트럼프 효과”라며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환영했다.

최선용·김기환·이수정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647,000
방3/화2.2/차고1, End Unit
매우 관리 잘된 집, 편리한 로케이션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에이터
새지붕, New HVAC, New Thompson C 창문
Dream Home for You

페어팩스콘도
PENDING
\$235,000
방1/화1, 웃속하이 근처
넓은 공간, 수리한 집

스프링필드 타운홈
PENDING
\$510,000
방2/화2.55
업그레이드 많이 한, 관리를 잘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국민의힘 새 대표에 탄핵 반대 장동혁 선출

전한길·보수 유튜버 지원 등에 업고
합산득표 2367표 차 김문수에 신승
장 “당분열 물고가는 분들 결단하라”

반탄(탄핵 반대) 기치를 내건 장동혁(사진) 의원이 26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표 경선 결선에서 합산 22만302표를 얻어 21만7935표의 김문수 후보를 2367표 차로 꺾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84일 만에 지도부 공백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새 지도부를 꾸렸다. 승부를 가른 건 당심(黨心)이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결과에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39.8%를 기록해 김 후보(60.2%)에게 20.4%포인트 차로 밀렸다.

하지만 80% 비중인 책임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16만5189표)보다 2만212표 많은 18만5401표를 얻어 가까스로 승부를 뒤집었다. 장 대표는 선출 직후 대

여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승리와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을 통한 정권 재탈환이 목표”라고 했다.

장 대표의 당선은 이번으로 통한다. 8·22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 후보가 조직력과 정치적 체급에서 우위라는 평가였다. 하지만 전대 막바지로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상승곡선을 그렸고, 막판에는 김 후보를 제치며 역전승을 거뒀다.

장 대표가 당선 뒤 두 차례나 “당원과 새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장 대표의 승리 배경엔 보수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뜻하는 ‘윤 어게인(Yoon Again)’ 구호를 외치며 반탄을 주장하는 유튜버 집단에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장 대표였다. 지난달 31일 보수 유튜버 합동토론회에 제일 먼저 참석했고, 찬탄(탄핵 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성) 진영을 “배신자”로 몰아세워 이들과 결을 맞췄다.

이에 전한길씨를 비롯해 보수 유튜버가 줄지어 장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반탄 세력의 여론이 급격히 장 대표에게 쏠렸다. 그간 이들에게 부응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혀왔던 장 대표는 당선 뒤에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지키겠

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동혁 체제 출범은 보수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주류로 올라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결선 막판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차악을 뽑자”며 김 후보를 지원한 건 외려 반탄 지지층의 역결집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영남 중진의

원은 “장동혁을 뽑자고 전화에 불이나도록 독려했다”는 주민이 많아 놀랐다”고 전했다. 전대 기간 친한계와 찬탄파를 “배신자·내부 종질자”라고 비판해 온 장 대표는 당선 첫날에도 “단일 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을 분열로 물고 가는 이들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의 악수조차 거부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서 ‘싸우는 야당’을 앞세운 장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빼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덕담을 건넨던 정치 상례와 달리 박수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당선에 “극우의힘을 넘어 내란의힘”이라는 논평을 냈다.

▶강성 당원과 유튜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고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의 행보가 달랐다”(국민의힘 조선의원)는 평가도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극렬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국희 기자**

판사 출신 재선 의원… 친한계 핵심서 반탄 대표주자로

장동혁은 누구

보령-서천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한동훈과 윤 탄핵소추안 놓고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던 지난해 12월 11일, 이를 악물고 국민의힘 대표실을 나가는 장동혁(재선) 의원과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한 배를 탔던 두 사람의 정치 인생을 갈라놓는 변곡점이었다.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던 장 의원은 이날 당시 당을 이끌던 한 전 대표의 ‘윤 전 대통령 탄핵 로드맵’에 공개 반대했다.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장 의원은 책임의 표시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지도부의 일원이 됐던 장 의원이 먼저 직을 던지자 나머지 최고

위원도 출사퇴를 했고, 한동훈 체제는 결국 붕괴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흐른 26일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됐다. 굳은 표정의 과거와 달리 웃으며 대표실로 입성한 그는 반한계 핵심 인사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반탄’ 대표 주자로 올라섰다.

장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보수의 젊고 유능한 새 지도자”(옛 친윤계 의원)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야망이 불타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친한계 인사)이란 평가가 공존한다. 친한계 핵심으로 불릴 때도 “나는 친한계 장동혁이 아니라 정치인 장동혁”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장 대표와 달리, 친한계는 “오늘날의 ‘장동혁 대표’가 있기까지 ‘친한계 핵심 장동혁’이 디딤돌이 됐다”고 본다.

김태홍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에서 202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가 2023년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게 그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줬다는 이유다.

통상 3선 이상이 맡아당의 살림을 챙기고, 더군다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0.5선’ 장 대표의 발탁은 실제로 파격적이었다.

1969년 충남 보령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5회)와 사법시험(43회)에 합격했고 판사를 지냈다.

장서윤 기자

대통령 “한국 정치혼란, 특검 조사중” 트럼프 “특검? 미친 잭 말하는 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9시20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다. 12시15분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2시간55분 앞둔 시점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백악관 주변은 일순간 술렁였다. 이날 오전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행사가 50분쯤 지연된 것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우리 군사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내 특검 수사 상황을 거론한 것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다.

정상회담은 약 25분 지연된 12시40

분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다.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받았다. 이어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됐다”며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 뒤 “나는 오후에 있었다고 확인한다”며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밖의 발언에 양 특검팀은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교회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당시에 교회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한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며 “관련 소환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자료는 한국 경찰 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 군만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 관련 미군 측에서 문제로 삼거나 항의한 사실조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형구 기자**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약역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특점 Triangle 타운콘도

2014년 BUILT, 방3,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GARAGE, 고급스러운 스타일 부엌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아일랜드,
Wood Floor, New Paint, New Deck

\$429,900



특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55,000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특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깝음

\$7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트미를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5. 애난데일 싱글 Under Contract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학교 호재(선, 방, 화, 키로치), 세차장, 도크로보이 (4대차), 화실, 2,312sqft, 0.6acre, SOLD AS IS, 동박사서 보타 심판불이상 확인, 리모벨링/투자 가치높음, 395/236/495/95/66
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교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3. 던로링메트로얍 콘도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 835sqft, 전부 리모벨링, 마루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3, 최고 학교, RT267/50/28/607, 필라즈 공영 Coming Soon
아이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미국 주영, 백년로, 전영, 분수, 테크, 융합 시설 등)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10. 센터빌 벅타운 \$589,900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1, 화1, 762sqft
2.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3. 렌트 \$3,200 / \$3,500

1. 센터빌 2차고, 맥, 콜린벨 초중, 28/66/50/286
2. 애쉬번타운 3차고, 맥, BIRAR WOODS high, 267/607

매매/리스

*센터빌 중상 상업용 미장형 은유티
NEW HVAC, 좋은 조건, 최고 리모벨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형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 옆

“꼬인 인생에도 이유 있더라… AI는 못 할 선택”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뭇 하나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문과 성향인데 학교 맘대로 이과반 보내버리고, 고교 졸업 직후 친구들이랑 그룹사운드 만들어 록스타 될 꿈에 부풀었는데 재능이 따라주지 않았다. 본인은 서울대 갔지만, 대학 못 갈 정도로 공부 못하는 애들과 주로 어울렸다.

형·누나 등 그 시절 대학생들과 달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대학 내내 업소에서 드림 치며 푼돈을 벌었다. 그러니 정작 학교에서는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 F도 술하게 받았다.

이렇게 꼬인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뇌 연구자가 됐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출판부에서 영어로 먼저 낸 『기억의 미래(A Brain for Innovation)』를 최근 직접 번역 출간한 한국 1세대 뇌 과학자 정민환(64)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얘기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시냅스 뇌 질환 연구단 부단장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공동 연구하고 있다.

광광질광, 모순으로 점철된 인생이 이런 반전을 이룬 데는 본인도 잘 모르던 결정적 한 방이 있었다. 바로 ‘관심’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경험이 이 관심 속으로 수렴됐다. 어릴 때부터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궁금했으며 재미있었다. 생각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한 의문은 왜 동물과 달리 인간만 혁신적 문명을 이뤘는지에 이르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뇌 연구에 매달렸다. 좋아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은 덕업일치의 모범사례다.

딱 하루치 신문만 훑어봐도 AI(인공지능) 소식이 넘친다. AI가 사기꾼의 조작 정보를 거르지 못한다든지, 인간이 AI에 너무 의존해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AI 정신병이 대두한다든지, 대학교수나 종교인마저 과거 인간만 할 수 있다고 믿어온 영역을 AI에 내주며 낭패감에 시달린다는 등 좋은 싫든 AI와의 공존 얘기로 가득하다.

지난 22일 AI 시대에 인간 뇌는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또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정 교수와 대화했다. 그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기억의 과거, 효자동 라이언스 클럽 백수

서울대 79학번인데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했다. 입학 후 박정희 유신 붕괴와 전두환 신군부 등장을 알린 10·26과 12·12가 터졌고, 이듬해는 또 5·18 광주. 이런 정치적 상황 탓도 컸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부가 안 맞았다.

형·누나 모두 사회학과 갈 정도로 사회과학 쪽에 경도된 유전자를 타고났고, 고1 때 적성 검사에서도 완벽한 문과 성향으로 나왔는데, 내 인생과 아무 상관 없는 교감 선생님이 내 인생을 틀었다. “검사 틀렸어, 너 이과야.” 그땐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 입시 성과 올리려는 째수였다. 적성 안 맞는 이과 전공 중 그나마 자연과학 계열이 의대·공대보다는 나아 골랐다. 문제는 동물학과로 전공 정하기 전 1, 2학년 때 듣는 물리·수학 같은 기초 과목 수업이 너무 재미없었다. 특히 내 문과적 성향과 상극인 화학은 F를 여러 번 맞았다. 시대 분위기도 일조했다. 정치적 불안과 극렬한 학생 운동 등으로 휴교할 때마다 난 판짓을 했다. 바로 유혹업소 드러머.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술손님 신청곡 연주하는 샴유 악사였다.

교감 선생님 맘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 데 이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인생을 뒤엎든 결과였다. 이번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긴 했지만, 친구 따라 집안 유전자와 거리 먼 록음악 하겠다고 대입 끝나자마자 드림 학원부터 갔다. 고교 때 나보다 먼저 기타 배운 중학교 절친을 비롯해 같은 동네 살며 젊음을 낭비하던 친구들과 일종의 백수 클럽인 ‘효자동 라이언스 클럽’을 만들어 놀았다. 꿈만 컸다. 당시 주류인 트로트 대신 제대로 된 록음악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술한 사람들 속에서 내게 음악적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너무 놀아서인지 노는 게 지겹기도 했다. 마침 어릴 때부터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진짜인가’ ‘내 생각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품어왔던 인식론적 질문이 다시 자꾸만 떠올랐다. 그렇게 3학년 2학기에 정신 차렸다. 공부는 의외로 재미있었다. 문과였다면 심리학을 했겠지만 동물학과에 왔으니 뇌를 연구하면 되겠다 싶었다. 훗날 서울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지낸 한국 생물학계 대부 조완규(97·국제백신연구소 고문) 교수 발생학 연구실에서 석사까지 쫓 달렸다. 교감과 절친, 이들이 내 의지나 재능

‘효자동 백수 클럽’ 업소 드러머
F학점 서울대생의 인생 반전기
관심 따르니 해맨 길도 과정
좋아하는 일 하면 AI보다 낫더라



지난 22일 최근 『기억의 미래』를 낸 한국 1세대 뇌 과학자인 정민환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만났다. 우상조 기자

과 전혀 다른 길로 날 이끌었지만 결국 어릴 적 관심사로 돌아왔다. AI라면 못했을 선택이다.

기억의 현재, 덕업일치 과학자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영국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1916~2004) 영향으로 1980년대 생명과학계 화두는 분자 생물학이었다. 하지만 난 뇌, 특히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생물학적으로

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갔다. 우연히 분자 생물학 거두인 크릭이 “앞으로는 발생학이나 (뇌 다루는) 신경과학 연구가 유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걸 보고 확신을 얻어 1986년 미국 UC 어바인으로 유학해 본격적으로 뇌 공부를 했다.

당시 미국은 지금 AI 기틀을 마련한 인공 신경망 연구의 3차 중흥기였던 동시에, 회복된 기억 치료법(RMT)이라는 심리치료 유행이 불려온 ‘가짜 기억’ 논쟁으로 떠들썩했다. 가령 1988년 경찰 폴 잉그램은 두 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처음엔 부인하다 인정한 걸 넘어 아예 ‘기억’해냈다. 나중에 조작된 기억이라고 알려줘도 믿지 않았다. 이듬해엔 아일린 프랭클린이 20년 전 친구 살해범이 자기 아버지 조지라는 걸 기억해 그를 고발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 왜곡”을 주장했으나 아무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조지는 6년 만에 풀려났고, 진범도 잡혔다.

기억 왜곡은 물론 아예 ‘열기구 가짜 사진 실험’을 통해 가짜 기억을 심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뒤에도 왜 그런지는 미스터리였다. 그러다 2007년, 우리에겐 이세돌을 누른 알파고 개발사 구글 답마인드 대표로 익숙한 데미스 허사비스의 연구 등으로 해마가 기억뿐 아니라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일 한 뇌 부위(해마)가 기억과 상상 모두 담당한다는 발견은 위 두 사건 같은 가짜 기억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다.

이런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도 사람은 컴퓨터처럼 기억을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한다.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뒤섞이거나 사라진 정보를 채우려다 왜곡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편배달부 실수로 UC 어바인 라벨만 배달돼 광화문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며 합격통지서인지 불합격 레터인지, 아니면 봉투가 분실됐을까 마음 졸였던 일. 이 기억이 전부 진짜일까. 전에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기억의 진위를 판가름했지만, 생성형 AI 등장 이후 요즘은 오히려 시각물이 가짜 기억을 부추길까 걱정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 덕업일치 연구 인생이 AI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 믿는다. 엄청난 학습에도 불구하고 AI가 여전히 못 따라오는 인간 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AI와 공존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기억의 미래, 퍼스트 무버

박사 과정 시작 무렵부터 해마의 세 핵심 영역 중 덜 알려진 ‘CA1 신경망’

연구에 전착해왔다. 그 결과 2018년 ‘해마의 모사(시뮬레이션)-선택 모델’을 제시했다. 해마 기능이 단순한 과거 기억을 넣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모사)을 통해 최적의 미래 전략을 찾는 능동적 과정이라는 이론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가 쉬거나 자는 동안 해마에선 ‘기억의 응고화’가 일어나는데, 이 모델을 대입하면 기억은 단순한 경험 강화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사-선택을 거쳐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학습 능력과 지식 전달 면에서 모두 AI가 인간을 앞서나가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아마 많은 사람이 창의성 하면 고대 그리스 아라키메데스의 “유레카!”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맞다. 휴식이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3B가 있다. 부피 측정 원리를 발견한 아라키메데스가 목욕(Bath)하며 긴장 풀 때, 주기율표 만든 멘델레예프처럼 침대(Bed)에 누워 잠을 청할 때,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기차(Bus)에서 툴링이 해리 포터 영감을 떠올린 것처럼,

3B로 뇌를 느슨하게 만들면 기발한 생각이나 문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다시 AI로 돌아와, 인간은 오랫동안 언어와 창의성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차이라고 생각했다.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글쓰기나 예술적 창작 등 지적 영역은 대체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이젠 아니라는 걸 안다. AI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면서, AI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인간의 주요 능력이 됐다. 그러려면 비판적 사고는 필수다. AI가 주는 정보를 맹신하는 대신 검증하는 능력, 질문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B를 얘기하면 마치 멍 때리고 쉬는 게 창의성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모사-선택 모델이 맞는다면 상상력은 기억에 기반하므로 결국 개개인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상상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 창의력 높이는 비법은 없지만 가치 있는 문제에 꾸준히 몰두하고, 아무리 프롬프트 한 줄로 AI로부터 지식이 쏟아져도 스스로 지식을 축적해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다.

내 인생처럼 우연 속에서도 관심을 따라가면 ‘퍼스트 팔로워’에 급급했던 과거를 넘어 AI 시대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나고 민심도 시요?

하루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새 빌더홈
퍼펙트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퍼펙트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뿔뿔)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첫발 잘 댄 이재명 정부 대미 외교, 본 게임은 이제 시작

어제(한국시간 26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시한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넘어섰다. 국가안보·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방미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돌출 발언을 올리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두 지도자가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고,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희석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회담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관세 협상 때 합의한 조선 협력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침을 재확인했고, 한국 기업들은 추가로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 입장도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서도 양국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입장을 밝히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손잡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라던 미국 입장에 적극 동조했다.

성과도 있었다.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있어 향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

커(peace maker)’, 이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맡자고 제안한 것은 나름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날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을 내지 않았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상회담 운영 방식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지만, 양국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디테일이 중요하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은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와 수익금 환수 방식도 실무 TF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원자력 협력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일에도 디지털 규제에 추

가 관세 방침을 밝힐 정도로 통상 압박은 현재진행형이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잠복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다. 중국은 이미 방중 특사단에 미·중 균형외교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영정 노동당 부위원장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미 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3년 반을 동고동락해야 할 두 정상이 일단 첫 단추를 무난히 끼웠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반탄’ 갇힌 채 혁신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새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치러졌다. 그런 데도 강성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 대표가 뽑힌 것은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반탄파였지만, 김 후보가 ‘찬탄파’까지 포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장 대표는 줄곧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이를 반영하듯 결선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60.18%를 얻어 장 대표(39.82%)보다 우세했으나 당원 투표에선 장 대표가 큰 차로 우세를 보였다. 당성과 민심의 온도차가 드러난 셈이다.

당선 직후 장 대표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대며 강경투쟁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자신을 당대표로 선택한 것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당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

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 심판이 끝난 탄핵 반대 노선을 고수한 채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장 대표는 자신의 당선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주장하며 장외 보수 유튜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죄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가겠다”고 밝혔다.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기는 커녕 오히려 “단일대오가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가 불가능한 만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며 찬탄파를 겨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미 뽑힌 최고위원 5명 중 3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탄파가 장악하게 됐다. 장 대표에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과제다. 그러나 보수 야당이 여전히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모습이라면 영남과 서울 강남에 갇힌 당의 외연을 넓히기는 어렵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강성 당원이 아니라 중도 유권자다. 합리적인 보수의 정책과 이미지를 발굴해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이다.

예전에도 ‘대국 계약’ 주장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WEC)와의 계약을 “대국”이라고 비난하는 걸 보며 2017년 문재인 정권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이의 일이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이 UAE 왕세제를 만나러 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후 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UAE 간 원전 수주에서 뒷거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잠사를 수습하러 갔다”고 했다.

청와대가 반박했는데 매번 말이 달라졌다. “UAE와 정보 교류 차원이었다.” “UAE 왕세제의 긴급한 요청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문제 삼다가 말이 나간 했다. 특히 아크 부대 파병 등 군사협력이 쟁점이었다. 합의 때 국방장관인 김태영은 당시 “적폐 청산을 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오해한 것 같다.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했으면 한국과 UAE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줬을 것이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군사협력이 없더라도 원전 수출이 가능했을까. MB 정부 인사가 전한 일화엔 이런 게 있다. UAE 수뇌부가 “특전사를 보고 싶다”고 했으나 MB가 “3개월 후 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사이 원전 발표일이 있었다. 한국이 수주해야 특전사를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가 뒤통을 맞았다. 국익은 그런 것이다.

한수원과 WEC의 계약을 두고 민주당은 “원전 주권을 미국에 박탈당한 굴욕적 합의”라고 한다. “협상 파기·재협상과 문책”(황명선 최고위원) 요구도 나온다. 계약만 보면 고개를 가웃하게 되긴 한다. 기술자립을 했는데도 WEC에 향후 50년간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북미·EU(유럽연합)·우크라이나·일본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니 말이다.

시아를 높이면 그러나 다른 풍경이 보인다. 우리가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동의 내지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수출 통제다. 두 나라 공히 원자력공급그룹(NSG)에 가입해 있고, 우리 원전이 WEC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해서다. 미 에너지부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2023년)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대한 일도 있다. WEC에 “문지기”를 맡긴 것이다.

그런 WEC의 본사가 펜실베이니아에 있다. 요즘 한·미 간에 핫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의 상징인 필리조선소가 있는 주다. 내년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느냐, 마느냐 좌우할 경합주다. 필리조선소가 트럼프에게 통하는 이유가 조선소인 데다 경합주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WEC가 “미국 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빼앗긴다”고 하는데 미 정부가 누구 얘기를 들었나.

그러니 이번 계약을 두고 “현실적 선

한수원-WEC 계약 매도하지만 원자력 수출통제란 큰 틀서 봐야 UAE 때처럼 선부른 정쟁화 곤란

택”(황주호 한수원 사장)이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원자력 분야의 한 교수도 “요즘 한수원-WEC 조인트 벤처 논의가 나오는데, 계약 당시부터 있었다면 계약의 밸런스가 맞았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전체 원전은 다 모아도 100기, 미국은 300기다. 어디를 선택해야 하겠느냐”고 했다. 결국 한·미 협력이 중요하던 취지다. 공감한다. 논란 초기 대통령실이 진상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있다”(김용범 정책실장)고 물러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다시금 읽는 교훈이다. 매사에 정쟁 무기화가 우리 정치의 특징이라곤 하나 제3국과 관련된 일이면 숨 고를 필요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언론도 아닌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익이란 그런 것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쇄계약체결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저작권지(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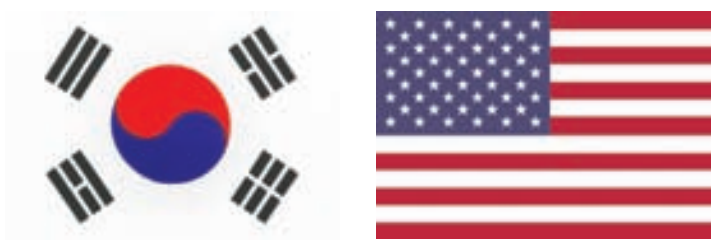
Old Lee Hwy. Pickett Rd.

TJ Maxx Main St. Center Main St.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Woodson H.S.

Burke Station Rd.

TRUTH FORUM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워싱턴 트루스 포럼

WASHINGTON D.C. TRUTH FORUM



Ambassador Morse H. Tan
모스탄 대사



Author Gordon G. Chang
고든 창 작가 (변호사)



전한길 대표
전한길 뉴스 발행인 & 한국사 1타강사



김은구 대표
트루스 포럼 국제대표 & 설립자

일시
Date & Time

September 13, 2025 at 2:00 ~ 6:00 pm

장소
Location

Westfields Marriott Washington Dulles
14750 Conference Center Dr., Chantilly, VA 20151

문의
Contact Us

301-991-9129 / 540-705-6055
truthforum832@gmail.com



심하보 목사
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재학 목사
TRUTH FORUM USA 상임대표

후원
Donations

Zelle - 443-970-0628

Truist Bank: TRUTH FORUM USA
Account # 1210009012891 | Routing # 055003308
Check: Payable to TRUTH FORUM USA
PO BOX - 3152 FREDERICK, MD 21705



주최
Host

TRUTH FORUM USA / TRUTH FORUM D.C.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춘
알
빌딩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August 27,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병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겨뎠’에 셔츠 축축하고 암내 날 땀

땀 질환 극복하려면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분비되는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다. 몸의 열을 발산해 체온을 관리하고 몸 안의 나쁜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심각한 고민거리다.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땀 냄새가 심한 사람은 여름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날씨엔 증상이 악화하기 쉽다. 적절히 치료받고 관리해 여름을 무탈하게 나자. 김선영 기자

땀샘 이상으로 다한증·액취증 호소
악화 요인 피하는 게 치료 첫걸음
땀 억제 약 바르고 약용 비누 사용
약물만으로 효과 없다면 수술 고려

특별한 이상이 없는 데 땀이 많이 나는 일차성 다한증이다. 보통 ▶땀 분비가 비교적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과도하게 땀을 흘리며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발병 시점이 25세 미만인면서 ▶다한증 가족력이 있고 ▶잘 땀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우라면 의심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날씨가 덥고 습할 때 ▶긴장할 때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문을 열어

두거나 에어컨·선풍기를 사용해 주변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또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음식을 식혀 먹거나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메뉴는 고르지 않는다.

생활습관을 관리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이다. 이뎠 주 로 땀 분비 억제 약을 활용한다. 약을 바르거나 먹는 식이다. 보톨리눔 독소 주사 치료를 받는 것도 주요한 치료법이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는 “주사 후 2~4일 뒤 땀 분비가 줄기 시작해 2주 이내에 분비량이 확연히 감소한다”며 “효과는 평균 6~8개월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경희 교수는 “아포크린샘에서 나온 땀 자체는 냄새가 없다”며 “피부에 상주하는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만들어 액취증 특유의 냄새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액취증은 아포크린샘이 커지는 사춘기 이후부터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

액취증은 별도의 진단 기준이 없지만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고 ▶악취 거드랑이에 휴지를 깐 다음 5분 후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겨움을 느끼거나 ▶종일 입은 흰옷의 거드랑이 부위가 누렇게 변한 경우라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직장인 조모(45)씨는 땀 때문에 여름이 두렵다. 영업직군이라 거래처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은데 항상 셔츠가 땀에 축축하게 젖는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약속 장소로 걸어갈 때 얼굴과 겨드랑이, 목, 등, 발에서 땀이 흘러 닦아내기 바쁘다. 여분의 옷을 챙겨 다녀도 금세 땀에 젖어 소용이 없다. 조씨는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일까 걱정”이라며 “여름엔 사람을 만나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토로했다.



땀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나는 증상을 다한증이라고 한다. 몸에는 에크린과 아포크린이란 두 가지 땀샘이 있다. 에크린샘에서 나는 땀은 99%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다. 끈적이지 않고 냄새도 거의 없는 맑고 투명한 땀을 배출한다. 다한증은 에크린샘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발생한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600~700mL 정도 땀이 난다. 다한증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3~8배 많은 하루 약 2~5L를 흘린다. 노원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만실 교수는 “땀의 양을 재서 진단하기보다 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한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수술을 고려한다. 작은 내시경을 사용해 땀이 많이 나는 부위와 관련 있는 신경을 절단하는 교감신경 절제술이 대표적이다. 다만 박만실 교수는 “수술 후 신체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올 수 있고, 식사 시 얼굴에서 땀이 나는 미각성 다한증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땀샘의 이상으로 냄새가 심한 액취증 환자 역시 여름이 고역이다. 주변에 불쾌한 냄새를 풍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액취증은 아포크린샘과 관련이 있다. 아포크린샘은 95%가 겨드랑이에 분포한다. 나머지는 귀나 눈꺼풀, 유두, 배꼽, 회음부에 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자주 씻고 땀을 억제하는 약을 바르거나 살균 작용이 있는 약용 비누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어 겨드랑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레이저를 활용한 겨드랑이 영구 제거 역시 액취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김혜원 교수는 “영구 제모로 털을 제거하면 땀이 피부 표면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건조하고 청결한 환경이 조성돼 냄새가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아포크린샘 제거 수술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도 있다. 아포크린샘이 포함된 피하지방층을 잘라내는 피하절제술, 초음파나 레이저 지방 흡입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흡입하는 지방 흡입술이 대표적이다. 민경희 교수는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한 액취증은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흰옷 겨드랑이 부위 누렇게 변하면 의심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단백질과 당질, 지질을 포함해 점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노원을지대병원 성형외과 민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집 비밀번호 뭐지?” 중년기도 치매 위험... 일찍부터 두뇌 건강 챙겨야

뇌 활력 높이는 포스파티딜세린

두뇌 건강 가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효과 은행잎 추출물 함께 섭취 땀 시너지

“휴대폰을 어디에 뒀더라?” “집 비밀번호 호가 뭐였지?”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해진다면 치매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75세부터 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85세 이상에서는 30%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보다 젊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근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도 증가세다. 2009~2019년 10년간 3.6배 늘었을 정도다. 나이를 막론하고 뇌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특히 60대는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시기이므로, 이때의 건강관리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65세 미만 치매 10년새 3.6배 늘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절주와 금연은 기본이다. 중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지키려면 절주와 금연 등을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

양치매센터에 따르면 과음은 인지 장애 확률을 1.7배 높이고,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1.59배 높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 손상을 경험

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운동할 때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치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반면에 부지런히 읽고 쓰는 행위는 치매 예방에 유익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견과류, 생선, 채소 등을 골고루 챙겨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노화로 감소하는 뇌 속 성분을 보완해주는 기능성 원료를 곁들여도 좋다. 대표적인 게 포스파티딜세린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를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로, 뇌세포와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며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세포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감소해 인지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러한 변화를 보완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두뇌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의 효능은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됐다. 평균 60.5세인 치매 환자에게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했더니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전날 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7.4년 ▶열차 리 숫자 암기 능력은 3.9년 각각 연장됐다. 또 65~78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학습 인지력, 얼굴·이름 연계 인식능력, 안면 인식능력 등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흡수율 높여려면 순도 꼼꼼히 따져봐야
단, 외부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지방에 녹는 인지질 성분이라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의 순도는 30~70%까지 천차만별로, 지표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해 순도를 높인 제품일수록 흡수율이 높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 지표 성분 함유량과 순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포스파티딜세린 외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이다.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터페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경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억제하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터페노이드는 뇌의 미세혈관을 확장하고 혈류 개선을 도와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

하지수 기자

시각장애인의 눈과 벗, 32년간 함께 걸었다

개교 32주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고 이진희 회장 지시로 학교 설립 총 308마리 분양, 85마리 활동 중

“지난 32년 동안 안내견들은 파트너의 눈이 되어주고, 가족이자 든든한 친구로 함께해왔습니다.”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개교 32주년 기념식.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는 동안 ‘태백’이는 늠름한 표정으로 김 의원 곁을 지켰다. 22대 국회부터 함께한 김 의원의 네 번째 안내견이다. 직전 안내견 ‘조이’와 새 입양가족도 자리

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조이’를 어루만지며 “나랑 의정활동 다닐 때보다 털도 길고 살도 찼구나”라며 반가움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선 안내견 8마리가 장애인 파트너와의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km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딴 선지원 선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선 선수는 네 번째 안내견 ‘나리’와 무대에 올라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나리’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의지를 다졌다.

안내견은 통상 7~8년간 활동하다 은퇴한다. 이날 ‘조이’ 등 5마리의 은퇴견을 새 가족에게 보낸 장애인과 안내견



안내견학교 32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안내견 태백이. [사진 삼성화재]

을 길러낸 자원봉사자들은 “추억이 많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안내견 양성은 고 이진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다. 이 전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한 1993년 이 학교를 설립했다.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안내견학교다. 이 전 회장은 생전에 “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1994년 첫 안내견 ‘바다’를 시작으로 매년 15마리 내외가 시각장애인의 품에 안겼다. 학교는 지금까지 총 308마리를 분양했고, 이 중 85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안내견이 되려면 생후 약 2개월 때쯤 일반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훈련(퍼피워킹) 과정을 거친다. 은퇴 안내견의 노후를 돌보는 ‘은퇴견 돌봄 케어 봉사’, 부모견을 돌보며 우수한 안내견의 탄생을 돕는 ‘부모견 돌봄 봉사’ 등에 참여한 가정은 현재까지 28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안내견학교의 지난 32년은 자원봉사자와 정부·지자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 된 걸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하며 “시각장애 파트너와 안내견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노화 예방 미용이 대세 ... 첨단 레이저로 맞춤형 피부 치료 가능”

인터뷰 지피 오저아몬
루메니스 글로벌 CEO

“뷰티테크는 각자가 원하는 아름다움에 다가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회의실에서 만난 루메니스의 지피 오저아몬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미용 시술의 목적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루메니스는 1966년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다. CO² 레이저를 피부과 미용 치료에 적용한 선두주자다. 2012년부터 루메니스를 이끄는 지피 CEO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이달 초 처음 방한했다.

루메니스의 대표적인 장비는 ‘울트라 펄스’다. 이는 흉터 전문 프랙셔널 CO² 레이저 기기로 1998년 정식 출시됐다. 모공 및 주름은 물론 심한 여드름 흉터, 외상 흉터 같은 난치성 흉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후 30여 년간 진화를 거듭한 울트라 펄스는 다양한 미용 시술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 왔다. 지피 CEO는 “이번 신제품 ‘울트라 펄스 알파’는 기존 성능을 한층 더 강화한 차세대 레이저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방한의 목적은.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다. K뷰티를 선도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의료진의 역량이 뛰어난 곳이다. 특히 한 단계 성장한 울트라 펄스 알파의 기술이 한국 의료진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환자의 치료 만



지피 CEO는 “울트라 펄스 알파는 레이저 에너지를 목표 부위에 정밀하게 전달하며 초고도화된 맞춤 치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뭔가.

“울트라 펄스는 탁월한 기술적 성능과 시각적 결과를 제공한다. 에너지를 타깃층(피부 속 최대 4mm 깊이의 진피층)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을 갖췄다. 초소형 도트 사이즈를 구현해 현존하는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레이저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쏘는 방식) 중 가장 정밀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제품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나.

“울트라 펄스 알파에선 밀도 옵션이 CO² 레이저 ‘울트라 펄스 알파’ 첫선 정밀 타깃고성능 기술로 안전 치료

주변 조직 손상 최소화, 부작용 없이 시술 시간 짧은데 시각적 결과 탁월

이전보다 확장됐다. 치료 강도와 깊이를 1~25% 범위에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셈이다. 의료진의 편의성도 좋아졌다. 하이테크 인터페이스가

진화해 장비를 조작하는 게 더 편리해졌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 치료 설정(프리스트)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브리시 모드는 넓은 면적의 피부 부위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장 반응은 어떤가.

“출시 전부터 의료진 사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갔다. 시술 시간이 짧으면서도 결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기존 울트라 시리즈에 만족했던 의료진조차 알파 모델을 ‘넥스트 레벨’이라고 평가한다.”

지피 CEO가 내세우는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혁신’이다. 그는 단기 실적보

다 장기 성장을 위한 기술 투자에 더 큰 무게를 둔다. 루메니스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에 1억4000만 달러(약 1940억원)를 투입했다.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투자 규모다. 지피 CEO는 “최신·최상의 제품과 임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최신 트렌드는.

“시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의 흐름이 노화를 되돌리는 ‘리쥬비네이션’에서 노화를 미리 예방하는 ‘프리쥬비네이션’으로 바뀌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자는 인식이 파진 것이다.”

-루메니스의 사명감과 맞닿은 변화 같다.

“루메니스의 핵심 철학은 ‘Beauty Tech For Life(삶을 위한 아름다움의 기술)’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틀로 정의되지 않는다. 각자 다른 형태와 기준을 갖고 있다. 주름, 색소, 피부 톤 등 원하는 게 모두 다르다. 우리의 역할은 기술을 활용해 각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이다.”

-향후 전략은.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시장이다. 이곳에서 얻은 경험과 의료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뷰티테크 산업을 계속 선도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AI를 접목한 차세대 기기 출시도 예정돼 있다. 루메니스의 기술이 한국인의 피부 관리와 치료 분야에서 장기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신영경 기자

전문의 칼럼 윤기애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

물 많이 마시고 날음식 자제, 콩팥 건강 지키세요

폭염이 콩팥 기능 급격히 저하시켜
항생제 등 약물도 영향 줄 수 있어

여름철 무더위에는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급성 콩팥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콩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다.

하지만 땀 배출이 많아지고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만성 콩팥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더운 날씨에는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동시에 손실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소변 색이 진하거나 양이 줄었다면 탈수를 의심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다만 투석 중인 환자처럼 수분 섭취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 의

사와 상담해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다. 특히 생선회, 육회, 덜 익힌 고기, 날달걀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설사·구토·탈수가 생기면 혈압이 떨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무더위로 땀 배출이 증가해 소변량이 줄고 방광 내에 소변이 오래 머물게 되면 요로감염이 발생하기 쉽다. 요로감염은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면 고열, 오한과 함께 콩팥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다. ▶배뇨 시 통증 ▶잔뇨감 ▶아랫배 통증 ▶탁한 소변 ▶혈뇨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

원에 가야 한다.

진통소염제, 항생제는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약물도 콩팥을 통해 배설된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의 환자는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메트로 앞 7700 건물 6층

건강 칼럼

혈압과 뇌의 건강

과거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미국 인구의 약 0.6%, 즉 약 190만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90세 이상이었다고 한다. 통계청의 추산으로는 2050년에는 약 870만 명, 즉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 되는 인구가 만 90세를 넘는 최고령자 군에 속할거라고 예상하고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위생 환경 및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이 불과 몇 십년 전과는 다르게 놀랍게 연장 되었음을 실감케 만드는 숫자들이다. 디렝뎡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름아닌 노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치매의 위험성을 최고로 높이는 것 중 하나는 다름아닌 노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고령 인구에서 여성이 치매를 앓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약 1.5배 이상 많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85세 이상 여성의 45%에서 치매가 발견되었진 반면 남성의 경우 28%가 보고 되어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뿐이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서의 치매의 발병 확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치매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혈압 조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 일반이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전통적으로 고혈압은 치매의 위험인자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정확히 40~50대, 즉 중년에 발생한 고혈압만

이 노년기에 치매의 발생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또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어 즉 60세 이상에서 발생한 고혈압은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결과로 74세 이하의 나이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높은 경우가 많은 것은 치매의 위험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85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높은 혈압이 어느 정도 치매발병을 막아준다는 사실이 다.

즉 결과적으로 고령의 나이에 정상 혈압이나 또는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매 또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도한 혈압 조절이 때로는 뇌건강에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치매를 걱정하여 찾아온 환자들에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다름아닌 바로 혈압에 관한 질문이다.

언제 고혈압이 처음 발병했는지,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현재 혈압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등은 혈압과 관련하여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치매 위험군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아주 적절한 혈압관리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담 문의: 571-620-7159

더위 이기려 먹는 과한 보양식, 배부르면 열만 올라요

여름철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8월은 건강 관리, 특히 먹거리에 관심이 커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삼복(三伏)이라 하여 초복·중복·말복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식문화가 있다. 농경시대였던 조선 시대에는 ‘복날’을 농번기를 지나며 더위와 피로를 극복하기 위한 휴식과 보양의 시간으로 보냈다. 현대에도 어김없이 복날이면 삼계탕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고 (물론 나 도 그 줄에 합류해 있고) 그 안엔 땀을 뻘뻘 흘리면 국물까지 죽 들이켜며 바 닥이 드러난 그릇을 보면서 만족해하 는 얼굴들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여름 식습관

복날이면 찾는 삼계탕·흑염소탕... 현대인 영양섭취 과해서 문제

더운 날엔 소화력까지 떨어져 과식하면 체내 열 생산만 증가

적당량 나눠 먹는 소식 생활화를



을 늘려보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과일·채소·보리차 등을 섭취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탄산음료 로 대표되는 높은 당 함유 음료(SSB, Sugar-Sweetened Beverages) 섭취는 혈당,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SSB를 통합수분 섭취는 줄여야 한다.

30~59세 한국 남성 절반이 비만

이 시기이면 어김없이 진료실에서도 ‘기력이 쇠하다’ ‘우리 OO가 잘 못 먹어 서 보신이 필요하다’ 등의 걱정 섞인 말 을 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더 많이 만나 게 된다. 무슨 까닭인지 최근엔 흑염소 가 유행이라 먹어도 되는지 진료 중 문 의가 많고, 이미 선물을 받았다가나 비싼 비용으로 구매해서 드시고 있는 분 들도 상당수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여 전히 복날을 극복하기 위해 고단백·고 열량의 보양식을 선택해야 할까?

여름철에는 체내 전해질과 단백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양 음식이 필요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대인 은 과염양·비만·대사증후군 등의 문 제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건 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2014~2023년) 성인(19세 이상)에서의 비만,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비만 유병률은 2023 년 남자 45.6%로 보고되었고, 30~59 세는 50%가량의 비만이었으며, 19~29 세의 청년에서는 32% (2014년)에서 43.9%(2023년)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양 섭취 관련해서는 ① 남녀 모두 단백질과 나트륨 섭취량이 섭취 기준을 초과하고 ② 곡류·과일류 섭취 량은 감소하며 ③ 육류·음료류 섭취량 과 ④ 지방 에너지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는 현대인에서의 ‘잘 먹는다’의 방향성에 경종을 울렸다.

여름철에는 땀 배출과 더위로 인해 체력 뿐 아니라 소화기능도 약해지는 시기로 ‘얼마나 먹는가’보다 ‘어떻게 선택해서 먹는가’가 중요하다.

암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서 는 탄수화물 섭취는 현미나 통곡물 을 권장하고 있는데, 조정되지 않은 곡 물의 껍질·배유·배아에 식이섬유·비타 민·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당지수 (GI, glycemic index)가 낮기 때문이다. 당지수는 식후 당질이 소화·흡수되 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 수치를 높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과다한 인슐 린 분비를 유발하고 이는 폭식과 지방 합성 증가, 더 나아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탄

수화물 섭취를 위한 음식 선택과 조리 방식에 있어 당지수가 높은 음식, 즉 단 순당, 흰 빵, 흰 쌀밥 같은 정제된 당질 은 피하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 하는 것이 체중조절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 섭취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햄, 베이 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정제 과정 중 첨가된 아질산나트륨 등이 대장암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 이다. 적색육도 빈혈이 있는 환자나 고 령에서 철분과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대장 암 위험이 높아 2군 발암물질로 지정 되어 있다. 따라서 기름진 육류 대신 생선·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의 양

과채·보리차로 땀으로 나간 전해질 보충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존재하지 않 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는 지나치게 짠 음식을, 당뇨 환자는 당분 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더위 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식 하면 소화불량뿐 아니라 체내 열 생산 이 오히려 늘어나 더위에 취약해진다. 적당한 양을 나누어 먹는 ‘소식(小食)’ 습관이 여름철 건강 유지의 핵심이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충분한 영양 을 섭취하지 못한 ‘잘 못 먹은’ 시대를 겪어왔지만 현대의 우리는 오히려 영 양 과잉, 균형이 무너진 잘못된 식문화 속에 ‘잘못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복날 문화는 본래 더위에 지친 몸을 보살피는 지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 나 오늘날 복날은 고열량·고단백의 보 양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가’를 되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소연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정, 관리하는 최첨단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9/8 ~ 9/12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자녀 없다면... 50부터 철저한 노후 대비

나이 많으면 보험료 급등 롱텀케어 가입
저축 최대한 늘리고 네트워크 만들어야

미국도 높은 주거비와 육아 비용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노년기에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 퓨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운데 26%가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안하다고 답했다. 19%는 외로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혼자 남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지금부터 네 가지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축을 최대한 늘린다= 자녀가 없으면 육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농무부에 따르면 2015년에 태어난 아이를 17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3만3610달러였다. 최근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하는 부모도 많다. 2024년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47%가 매달 평균 1384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출을 IRA나 401(k) 등 은퇴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50세 이상은 추가 불입 한도를 활용해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든다= 노년에 의지할 가족이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미리 형성하

장기 요양 서비스 평균 비용

서비스 유형	연간 평균 비용
어시스티드 리빙	64,200달러
가정 간병인	75,504달러
간병 전문 병실	104,025달러

자료: 2024년 젠웬스

연령대별 은퇴 자산

연령대	은퇴 자산 중간값
65~74세	200,000달러
55~64세	185,000달러
45~54세	115,000달러

자료: 2022년 연준

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와 동호회, 지역 모임 등에 참여해 정기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편의성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 전용 커뮤니티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커뮤니티의 월 이용료는 1500~4000달러 수준이므로 예산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주거 유지 부담을 최소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 관리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뒤뜰 관리와 정원 손질 등은 은퇴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단이 많은 큰 집도 부담이 크다. 작은 단층 주택이나 외부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콘도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



오바마케어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이들은 의료비 지출을 잘 준비해야 한다.

각해 본다.

55세 이상에 맞는 은퇴 커뮤니티는 주택 외부 관리 등은 월 관리비를 내고 맡기고 내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 유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한다= 노년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롱텀케어 보

험이 필수적이다. 자녀가 없으면 말길 가족이 없으므로 요양시설이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연간 평균 어시스티드 리빙 비용은 6만4200달러다. 가정 간병인은 7만5504달러, 간병 전문 병실은 10만4025달러나 된다. 반면 65~74세의 은퇴 자산 중간값은 약 20만 달러에 불과해 의료비

나 요양비로 빠르게 소진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대 중반에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급등하고 가입 승인도 어려워진다.

안우희 객원기자

메디케어 특정 진료 사전승인 시범사업 시행

내년~2031년까지 6개주서
일부선 확대 우려 취소 촉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뉴저지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6개 주에서 피부과 조직 대체물 등 의료 사기 위험이 높은 17개 서비스에 대해 사전승인 요건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MS는 시범사업이 “사기와 낭비, 남

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계약업체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전승인을 검토한다.

다만 입원이나 응급치료, 자연 시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는 제외된다.

특히 고비용 의료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태반으로 제작한 피부 대체재가 메디케어 환자에게 제공인치당 약 1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제품의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승인했으며, 새로운 지침에서는 현저히 낮은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 제프리 마르 건강경제학자는 “이번 모델로 메디케어 지출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업체가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서비스 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주와 분야에 한정돼 있고 당장 메디케어 보장 범위나 지급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덴마크 정년 70세로 연장
“존엄한 노후 박탈” 반발도

덴마크가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덴마크 의회는 2040년까지 정년을 70세 늘리는 법안을 지난 14일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정년을 도입하게 됐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정년을 기대수명에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해 왔다. 현재 정년은 67세이며, 2030년에는 68세, 2035년에는 69세로 높아진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70세 정년을

적용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코펜하겐에서는 노조가 주도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덴마크 노조총연맹 에스퍼 에트루프 라스무센 의장은 투표에 앞서 “정년이 높아지면 존엄한 노후를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블루칼라에게는 이번 변화가 특히 가혹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매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해 “정년을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은 더 이상 옳지 않다”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해마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혀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과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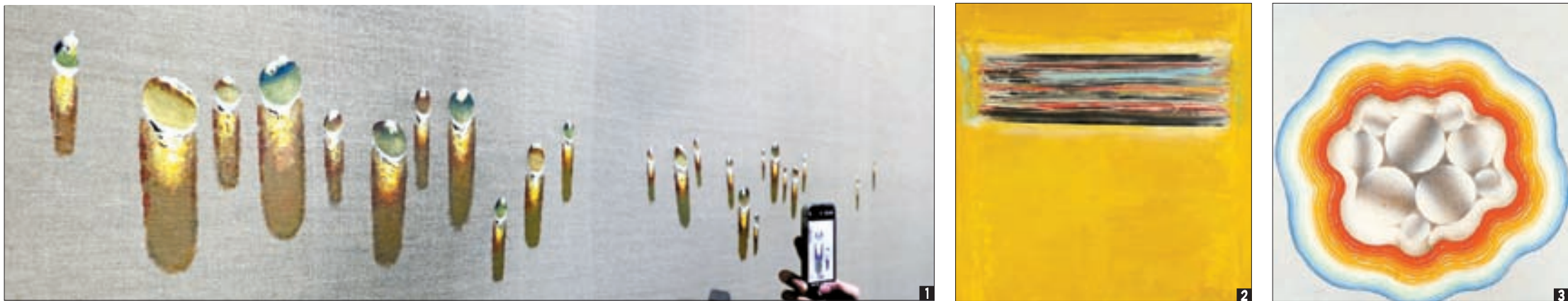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프링 롯데타운 (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인타운(H-mart)과 첼렌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2일 개막한 ‘김창열’ 회고전은 작가의 창작 여정을 세밀하게 조명하며 물방울 회화의 근원을 파고든다. 2 김창열, ‘제사’, 1966, 캔버스에 유화 물감, 162×137cm. 3 ‘무제’, 1969년경, 캔버스에 유화 물감, 20.5×20.7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연합뉴스]

물방울 하나하나가 전부 상처였다

현대미술관 서울관 김창열 회고전
6·25 때 동창 절반의 죽음을 목도
탱크의 흔적 등 추상화에 상흔 담아
깊은 사유 끝에 물방울로 고통 승화
“살아남은 자의 애도 일기 같은 것”



육명식 사진작가가 찍은 작업 중인 김창열. 1979, 종이에 디지털잉크프린트, 76.2×50.7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예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단순한 인내심이나 집요한 야망일까, 아니면 조금은 미친 걸까?” 김오안 감독의 다큐멘터리 ‘물방울 그리는 아버지’(2021)에는 김 감독이 아버지 고(故) 김창열(1929~2021) 화백에 대해 독백으로 던지는 질문이 나온다. 어떻게 한 화가가 50년 동안 줄기차게 물방울을 그릴 수 있을까? 김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들 뿐 아니라 누구나 품게 되는 질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물방울 화가’ 김창열 회고전을 지난 22일 개막해 12월 21일까지 연다. 작가 작고 이후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회고전으로, 미공개 작품 31점을 포함 총 120여 점을 보여준다.

전시는 특히 물방울 회화가 등장하기 이전인 1950년대 중반부터 김 화백이 파리에 정착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창작 과정을 세밀하게 조명한다. 물방울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가 여기 보인다.

평안남도 맹산 태생인 그는 열 여섯 살에 홀로 월남해 해방과 분단, 전쟁을 겪었다. 1948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6·25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 휴전 후 제주도 경찰전문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격월간지 ‘경찰신조’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이때 그가 대부분의 작품에 ‘제사’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점이다.

당시 그가 그린 추상화는 총알 맞은 살갍의 상처, 탱크가 짓밟고 간 흔적 등을 연상케 한다.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6·25 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120명 중 60명이 죽었다”고 했다. 작가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전쟁의 상흔을 집작케하는 대목이다.

전시는 그의 작품이 1965~69년 뉴욕 시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환기의 권유로 뉴욕 록펠러 재단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자신이 추구해온 예술에 대한 회의와 문화적 단절로 위기를 경험한다. 이 시기에 이전의 두껍고 거친 화면

은 사라지고 매끈한 표면의 기하학적 추상이 나타났다.

이후 파리로 터전을 옮긴 그는 또 한번 변화를 맞는다. 작가 스스로 ‘창자미술’이라 부른, 인체의 장기를 연상시키는 덩어리에서 점액질이 흘러내리는 듯 표현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현상’ 연작이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이하 학예사)는 “당시 작가의 드로잉과 메모를 보면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1971년 물방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계에선 작가 파리의 외곽 작업실에서 밤새 캔버스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보고 그린 것이 물방울 회화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김창열의 물방울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조형 실험과 존재인 사유 끝에 도달한 결과”(설 학예사)임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1973년 파리에서 연 개인전을 계기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전시는 프

랑스 국민 배우 카트린 드 뇌브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와서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의 저명한 평론가 알랭 보스케(1919~1998)는 물방울이 불리일으키는 명상적 힘과 존재론적 통찰에 주목했다. 이후 국내외 비평가들의 시선을 통해 물방울은 단순한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동양적 세계관과 연결되며 생성과 소멸, 찰나의 형상, 변화의 상징이자 ‘덧없음’의 은유로 읽혀왔다.

이번 전시엔 1955년작 ‘해바라기’ 등 초기작이 최초 공개된다. 설 학예사는 “작가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며 “그에게 물방울은 끝내 다 그리지 못한 애도의 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시기를 드러내 작가를 새롭게 마주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 한국 근현대사의 상흔을 예술로 승화한 작가 김창열이 거거 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벗기려던 자들과 화끈한 맞짱... ‘야만의 80년대’를 벗기다

그 시절 총무로 풍자한 넷플 ‘애마’
‘애마부인’ 제작 과정 새롭게 조명
이하니·방효린 ‘독특한 연대’ 호평
화려한 컬러의 세트, 향수 자극도

“네가 꿈을 꾸었구나! 꿈을 깨는 데는 매가 약이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정희란(이하니)의 대사다. 극 중 ‘애마부인’에 출연한 희란은 성적 욕망이 가득한 남주인공을 채찍으로 호되게 다그치며 이렇게 말

한다.

실제 1982년 개봉한 영화 ‘애마부인’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다.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2006), ‘독전’(2018)의 이해영 감독이 자신의 첫 번째 시리즈인 ‘애마’를 연출하며 현대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장면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애마’는 1980년대 총무로를 배경으로 당대 화제작이었던 ‘애마부인’의 제작 과정을 상상력을 가미해 조명했다.

제목만 보면 또 하나의 성인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예로영화가 인기였던 시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풍



자하는 6부작 코미디다.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이 감독은 “1980년대의 욕망을 응집한 아이콘 같은 존재로 ‘애마’를 내세웠다. 그 시대의 편견과 폭력에 맞

서 싸우고 견뎌야 했던 모든 애마들을 응원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국의 1980년대 영화산업을 소재로 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낯설 수 있

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전세계 스트리밍 작품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공개 직후 한국 2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까지 6개국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마다 ‘애마’라는 제목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성적 대상을 비판하고 시대에 반항하는 캐릭터를 내세워 2025년 방식으로 흥미롭게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황지영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ics
치아교정 Orthodontics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내 피는 반반이지만, 마음은 한국 원했다”

독일 태생 혼혈 카스트로프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
“명에·조건보다 정체성 중요”

“언제나 나의 뿌리,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국가대표 선택은 단순히 명예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다.”

독일 국가대표 발탁 가능성을 내던지고 한국축구대표팀 합류를 선택한 혼혈 미드필더 **엔스 카스트로프**(22)는 태극마크에 진심이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다음달 미국 원정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24일 발표하며 한국·독일 이중국적의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를 전격 발탁했다. 지난 1948년 런던올림픽을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한 한국 축구가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를 A대표팀에 뽑은 건 77년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한국대표팀 합류에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선수 자신은 물론, 어머니 안수연(59)씨, 한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마쿠스 한 미노스포르츠 대표 등과 꾸준히 단독 인터뷰하며 확인한 카스트로프의 의지와 열정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다.

어린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뿌리는 한국”이라 강조하며 양육한 어머니 안씨의 영향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안씨는 지난 1996년 독일 하노버대로 유학을 떠난 이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현지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뒤셀도르프에 거주하며 삼형제를 낳았는데, 2003년생 카스트로프는 둘째다. 안씨는 “어릴적부터 엔스에게 ‘나의 뿌리는 한국이고, 한국인 정체성을 가져



카스트로프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태극마크를 향한 진심을 털어냈다.

[사진 크리스티안 베하이엔]

엔스 카스트로프는

출생: 2003년, 독일 뒤셀도르프
체격: 1m78cm, 76kg
부모: 한국인 어머니(안수연), 독일인 아버지, 삼형제 중 차남 (동생 레니도 도르트문트 유스팀 거친 축구선수)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윙백, 윙어
소속팀: FC 쾰른(2021~23) 뉘른베르크(임대 포함 2022~25)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2025~)
이적료: 67억원(시장가치는 97억원)
국가대표: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 → 한국 A대표팀

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와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미하엘 뮐러(전 기술발전위원장)이 어머니 안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전임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에 이어 홍명보 감독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카스트로프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국내에 출생 신고를 했고, 5월에는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 소속도 독일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바꿨다. 독일축구협회는 독일 21세 이하(U-21)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던 카스트로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스포르트1 등 독일 언론들도 “독일의 희망이 한국으로 갔다”며 아쉬워했다.

홍명보팀이 보강해야 할 포지션으로 첫 손에 꼽히는 자리가 황인범(페예노르트)의 파트너(3선 미드필더)인데, 카스트로프는 6번(수비형 미드필더)과 8번(중앙 미드필더)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옐로카드를 11개나 받을 만큼, 젤나로 가투소(이탈리아)와 아르투로 비달(칠레)처럼 투쟁적인 스타일이다. 쾰른 17세 이하(U-17)

팀 시절에 플로리안 비르츠(리버풀)의 바로 앞에서 뛰면서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 쓸어줬다. 순간 최고 스피드는 시속 34.64km로 황희찬(33.3km)보다 빠르다.

홍 감독은 “황인범과 김진규(전북), 박용우(알아인) 등 기존 3선 중앙 미드필더와 다른 유형으로, 굉장히 파이터 성향의 거친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카스트로프는 “소속팀에서 감독님이 원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윙백이나 윙어로도 뛰었다”라며 웃었다.

독일축구협회는 튀르키예·폴란드계 메수트 외질, 일카이 귄도간, 루카스 포돌스키, 클로제 등을 데려오려고 각국 축구협회와 경쟁했다. 한국에서 문화와 언어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축구계에서 세계화는 대세다.

한국 여권을 취득한 카스트로프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는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60일 이상 경제 활동을 할 경우 군에 소집될 수 있다. 무거운 병역의 의무를 인지하고도 9000km 떨어진 한국행을 택한 카스트로프는 “한국 대표팀은 단순한 여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군 문제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 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뛰고 싶다는 의지다. 대한축구협회, 매니지먼트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카스트로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In mir fließt 50% koreanisches und 50% deutsches Blut, aber mein Herz ist koreanisch”. 한국어로 “제 피는 독일과 한국 50대 50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입니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린 기자



플리트우드가 PGA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Brett Davis-Imagn Images·로이터]

플리트우드 ‘163전 164기’ PGA 우승컵

투어 챔피언십 우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63경기 동안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던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첫 우승을 최다 상금 대회에서 따냈다.

플리트우드는 24일 조지아주 애플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4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우승했다.

플리트우드는 PGA 투어 164번째 출전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0위인 그에게는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따낸 첫 우승은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이 걸렸고, 시즌 최고 선수를 결정하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나왔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23위(6언더파 274타)에 그쳤다.

딱 30명만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에 7년 연속 출전한 임성재는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쳤지만, 전날 7타를 잃은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공동 27위(이븐파 280타)에 머물렀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김혜성 4경기 연속 안타… 주말 메이저 복귀

왼쪽 어깨를 다친 뒤 재활 중인 김혜성(26·LA 다저스)이 재활 경기에서 또 안타를 쳤다.

김혜성은 24일 워싱턴주 터코마 제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트리플A 터코마 레이니어스(시애틀 매리너스 산하)와 방문 경기에 다저스 산

하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의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곁들였다.

지난달 28일 어깨 점액낭염으로 10일째리 부상자 명단(LL)에 올라간 김혜성은 지난 20일부터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 출전하며 복귀를 준비 중이

다. 다저스 구단은 김혜성을 이번 주말께 빅리그로 불러올 계획이다.

김혜성은 이번 시즌 MLB에서 타율 0.304(138타수 42안타), 2홈런, 15타점, 17득점, 12도루로 다저스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혜성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두 팀이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승률이 같다면 상대 전적으로 순위를 가린다. 다저스는 이번 시즌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9승 4패의 우위를 점했다.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123 Ox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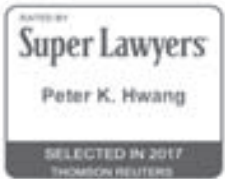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8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 ~ 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파살분
일요일 가능한 분, 풀/파트타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파살분
일요일 가능한 분, 풀/파트타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컷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테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트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 분
410-926-3200

골든뷰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
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 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버트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
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
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사업체 매매

글렌베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웬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
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
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
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
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파트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찰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 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애난데일 앤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면 사진 보여드립니다
703-395-4380

브리스토 (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앤드 유닛, 방3, 화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데크,
2013년 지은 새 단장 세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3, 화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3, 화2.5, 데크,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 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 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 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2, 화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앤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중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 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셜락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여진 집, 벽돌, 마루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우순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2, 새집같이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웃슨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2, 5000sqft 모던 디자인
2. 첼트리 하이싱글하우스 \$1,050,000
방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
드, 286/50 Lees corner RD
3.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7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 하우스 \$719,000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 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 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 높음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5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Triangle 타운콘도 \$429,900
2024년 built, 방3, 화5, 4층 구조, Gagage,
고급스러운 부엌, 아일랜드, 나무마루, 새 페
인트, 새 데크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페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
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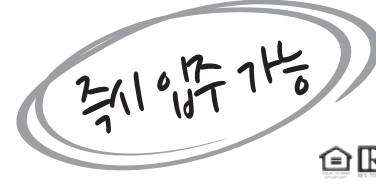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제니 지: 571-277-7758
insunchi@yahoo.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군, 델레스 공항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원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703-231-5572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엔드유닛, 시원한 레이어아웃 타운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고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델라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상버 운영하면서 투자용, 안정된 수입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헨트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로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편)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 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술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원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당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움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มป์,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 지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축,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문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독자가 행복 해진다



☎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 / 디스포저

◆워터히터 / 물새는것

◆하수막힘 / 변기교체

◆셉퍼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a.edu (213)381-3710

Yvette: Morning! I brought donuts for everyone.
이벳: 좋은 아침! 도넛 사왔으니까 다들 먹어요.
Lester: Donuts! I can't go off my diet.
레스타: 도넛이라고! 다이어트 중이라 먹으면 안 되는데.
Yvette: It won't hurt you to have one.
이벳: 하나쯤 먹는다고 나쁠 건 없잖아.
Lester: My problem is that I can't stop at just one.
레스타: 난 하나만 먹고 못 끝내는 게 문제야.

Yvette: If you put your mind to it you can.
이벳: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나로 끝낼 수 있어.
Lester: If I had that much discipline I wouldn't need to be on a diet.
레스타: 내가 그 정도 자제력이 있었으면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었어.
Yvette: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of you losing weight.
이벳: 살 빼는 거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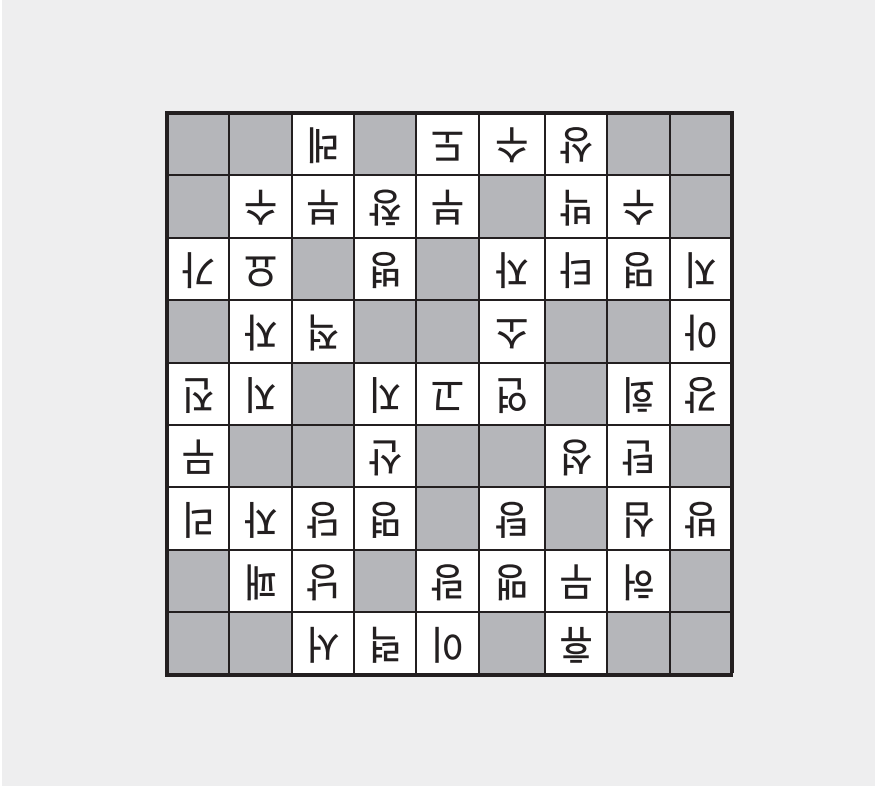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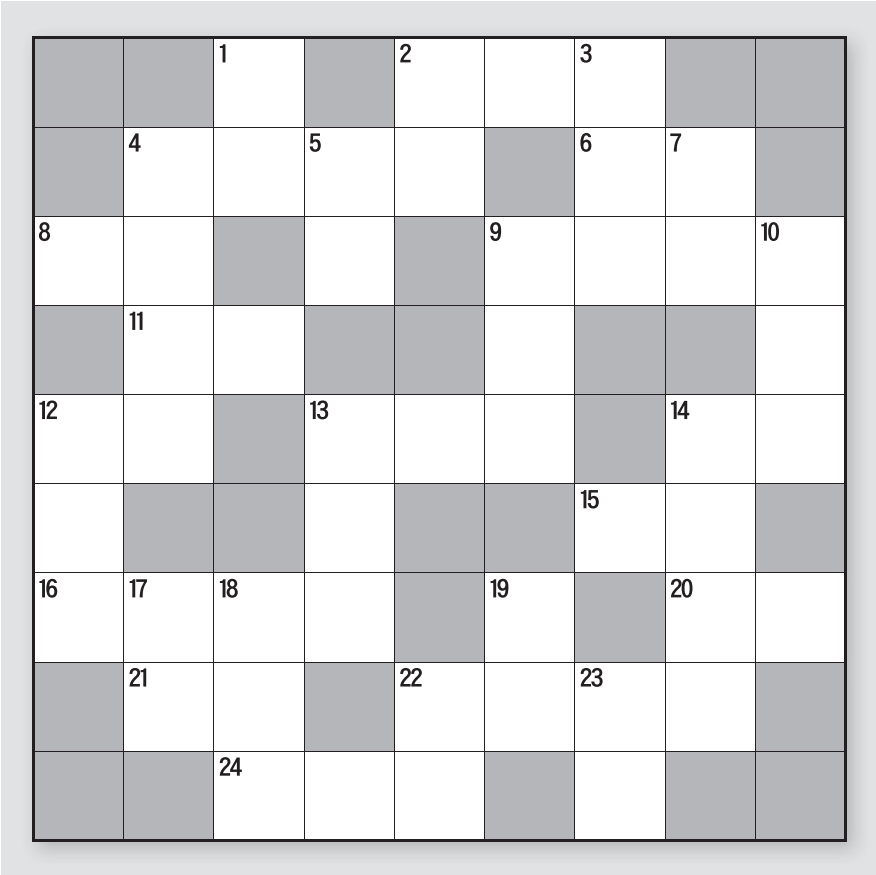
get in the way of (something)···(무엇을) 방해하다
(Yvette walks into work in the morning···)
(이벳이 아침에 사무실로 들어오며···)

Lester: Does this mean that you won't try to talk me into eating a donut? 레스타: 도넛 먹으라고 설득할 생각은 없다는 말이지?
Yvette: I won't say another word about it.
이벳: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
Lester: Thanks. I really appreciate that.
레스타: 고마워. 정말 감사해.

▶ go off (one's) diet: 다이어트할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다.
“I went off my diet last night so I feel guilty today.” (어젯밤에 다이어트에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 마음이 꺼림칙해.
▶ put your mind to (something): (무엇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You can do anything if you put your mind to it.”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가로열쇠

(2)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노력을 적은 서류 (4)터무니없이 거짓되어 실속이 없을 때 ~하다고 하죠 (6)계획한 일이 실제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별찌 기차가 떠났다니, 이것 참 ~로군 (8)마음을 다 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은 금물 (9)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뜻자 리나 집터 (11)몹시 감탄하는 소리. 산꼭대기에 오른 순간 멋진 풍광에 나도 모르게 ~이 나왔다 (12)미나리, 파 따위를 데쳐 돌돌 감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음식 (13)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따위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 경찰들이 용의자의 ~에 잠복하고 있다 (14)지각이 흔들리는 일 (15)수지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 장부에 기록할 때 붉은 글자로 기입한 데서 유래한다 (16)야구에서, 투수를 대신하여 공격을 전담하는 선수 (20)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하여 오는 심신 단련법 (21)무게 5~6kg까지 나가는 여름 과일 (22)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함. 부부 사이에 서로 협동하고 화합함 (24)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세로열쇠

(1)업무를 쉬 (2)갈아 놓은 쌀의 한 두둑과 한 고랑 (3)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을 모신 집 (4)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 이 자리는 노사가 ~하게 안건을 토론했다는 자리이다 (5)맹목처럼 아주 싱거운 국. 웅골차지 못하고 싱거운 일이나 사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찌 사람이 아주 ~이더군요 (7)경기에 진 사람. 어느 경기에서나 승자와 ~는 있기 마련이다 (9)좋은 물건이 많이 나서 이름이 알려진 장소. 율령도는 오징어의 ~이다 (10)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유리로 칸막이한 호화로운 대형 승용차. 공항의 여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 (12)어린 개 (13)나이가 어린 사람. ~연장자 (14)지혜로운 사람은 막힘이 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을 좋아함 (17)소질과 솜씨가 뛰어난 사람. 판소리의 ~ (18)맞거나 부딪쳐 생긴 상처 (19)가야금이나 거문고 따위의 악기를 타면서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22)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23)물고기의 배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스도쿠

4	6	9	7		3		1	
1	7			2		3	6	4
	2		4	1	6			
6	5		2	8		1		9
7		1		9			2	
2	9	8				4		7
5	1	7		4				3
			1					
9			3	6			8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8	2	5	9	3	7	6	4
2	4	5	6	2	1	9	8	3
3	6	9	7	4	8	2	1	5
4	5	4	1	3	9	8	6	7
5	2	8	4	6	5	1	3	2
6	3	1	2	8	7	4	5	9
7	2	8	4	6	5	1	3	2
8	1	2	3	5	2	7	6	9
9	4	5	6	9	1	4	3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CVS: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www.worldpay.com
worldpay

투자자 및 창업자 모집 안내

세계 1위 결제 솔루션 기업 Worldpay의 공식 파트너사 Liberty Bankcard(MPS)

브랜치 창업자 & 소액 투자자 모집

캘리포니아와 미 주요도시
신규 브랜치 오픈 예정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0명 한정모집

모집 대상

소액투자자 (50명)
\$5,000 투자 참여 가능
운영 참여 없이 수익 배당
설명회 참여 필수

창업운영자 (50명)
지역 브랜치 창업 및 직접 운영
초기 6개월간 고객 유치 협력
월 수익 \$2,000 ~ \$5,000 이상 가능

철저한 교육 제공

- ▶가맹점 유치부터 수수료 배당까지 전 과정 안내
- ▶운영자 전용 창업/경영 교육 제공
- ▶투자자는 설명회 후 개별제 계약 가능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대표 : 사라 류 박사 (경영학 & 영업학 박사, 하버드 경영, 정치, 교육 대학원 Alumni)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아브라함 리 (MBA)
Info@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 애틀랜타 ☒

매매 ☐ 구인 ☐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비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결여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둘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록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장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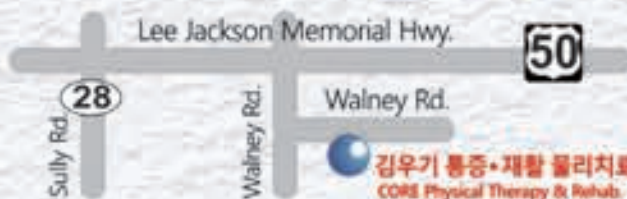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